EAST ASIAN LIBRARY NOV 29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2 1982년 11월 29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2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일은행 토론토지점

12월중 개업, 내년봄 불루어에도

외은에 이은 제2 한국계 은행

연말을 기해 토론토에 한국계은행 2호가 탄생한다.

12월 중순을 개점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는 캐나다한일은행 토론토지점은, 1호 은행인 외환은행 바로옆 제1 퍼스트·캐나디안·플레이스 69층에 자리잡는다.

지난 10월초 지점개설 허가를 받은 캐나다한일은행은 토론토 금융가의 중심지인 킹스트릿×베이·스트릿에 본부를 우선두고, 불루어지점을 내년 4월초순경에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철환 토론토사무소장이 25일 밝혔다.

한소장은 이날 "한일은행이 캐나다교포의 70%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포사회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교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일은행은 캐나다은행법에 의해 현지법인을 설립, 지난 3월24일 뱅쿠버에 본점을 설치, 서부지역 교민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벌여왔다.

81년부터 캐나다정부가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을 허가하자, 외환은행은 작년 10월부터 토론토중심의 동부지역, 한일은행은 뱅쿠버 중심의 서부지역에서 기반을 닦아왔다.

한일은행의 토론토지점 개설은 3~4만 교포시장을 노린 원인도 있으나, 캐나다금융가의 중심이 토론토이므로 은행의 도매와 금융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한일은행 토론토사무소의 이은갑대리는 덧붙였다.

한일은행 토론토지점은 형식상으로는 뱅쿠버에 있는 캐나다한일은행본점의 지점에 불과하지만, 토론토가 캐나다 금융의 중심지인 점을 감안할 때, 본점이상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점장을 비롯, 서울에서 파견된 4명의 직원과 현지직원 8~9명으로 운영될 한일은행 토론토지점은, 예금·대출업무외에 송금, 외국환, 무역관계업무등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한다.

한일은행은 오는 12월16일 창립50주년을 전후해서 개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81년 7월 대림산업등 10개 재벌그룹에 인수된 한일은행은 한국최초의 민간은행이며, 시중은행으로서 이미 20여년전부터 외국에 진출했다.

한편, 외환은행의 최승락 은행장은 "우선 새 은행의 탄생을 축하한다. 교포시장이 좁아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토론토의 교포 금융가는 작년도 외환은행개설로 활기, 외환은행이나 한인신용조합의 신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자본금 5백만달러로 출발한 외환은행의 자산금은 4천5백달러(10월말 현재) 규모로 늘어났다.

역시 자본금 5백만달러로 외환은행보다 6개월 늦게 출발한 캐나다한일은행(뱅쿠버)의 자산규모는 2천4백만달러(10월말 현재)에 달했으나, 토론토시장의 본격진출로 그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에는 외환은행, 한일은행에 이어 조흥은행도 연락사무소(소장 이원순)를 두고, 장차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사 고▶

사진대회 시상식 =12월4일 하오2시=

◆ 작품중의 하나. 입선작발표는 12월4일 시상식에서.

지난 10월2일 실시된 제7회 촬영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12월4일(토) 하오2시 Wayside화랑(9185 Yonge St. Borovov Plaza내, HWY7 북쪽)에서 칵테일파티를 겸해 거행됩니다.

아울러 입선사진작품들과 사진협회 임원들이 지난 여름 록키산맥에 원정촬영한 절경의 풍경사진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록키산 촬영자-전경수, 임정재, 김명선, 이성춘, 이기성)

이 사진전시회는 12월4일~11일, 8일간 계속되며, 작품에 따라 판매도 합니다.

사진대회 참가자, 사진애호가는 물론 일반교민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한인사진협회·토론토한국일보사—

일본수상에 나까소네

미국과의 관계 강화 강조

◆ 나까소네수상

(도오꾜=외신)일본의 경제, 국방및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약속해온 보수파정치 베테랑인 나까소네·야수히라씨가 25일 의회에서 일본의 전후 제17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워싱톤과의 관계 개선이 새 정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집권 자민당총재 나까소네(64)씨는, 이날 중의원 특별회의에서 287대 209로 당선되었다.

나까소네가 이끄는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다 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서도 무난히 인준될 것이 확실시된다. 신임수상은 일본헌법 67조에 따라 참의원의 인준을 받게되어 있다.

스즈키·젠코 전수상의 내각은, 신임 나까소네수상에 새 내각의 조각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25일 오전 퇴진했다.

나까소네씨는 지난주초 자민당의 11대 총재로 정식 선출된직후 가진 전국방영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국제협력과 세계비무장에 근간을 둔 일본의 외교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지금은 없어진 제국해군의 부사령관과 방위청장관을 역임한바 있는 나까소네씨는 자민당총재 입후보 유세에서 일본은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었다.

광주 미문화원 투폭청년 자수

(광주 26일=연합)지난 주말 광주에 있는 미국문화원에 사제폭탄을 던진 청년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경찰당국은 26일 권현근(21)군이 사건발생 5일만인 25일밤 경기도 수원경찰에 자수해 왔다고 발표했다.

권군은 경찰심문에서 자신이 20일 11시경 미국문화원 지붕에 휘발유와 신문지를 넣은 맥주병을 던졌을때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권군은 이번 범죄행위의 동기는 가난이며, 세인의 관심을 끌어 불만을 해소하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권군은 21일 서울로 도망친후, 수원에서 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수원경찰에 자수했다.

고향인 전북 임실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권군은, 최근까지 광주에서 철공소에 다녔다.

권군이 사제폭탄을 던진후, 문화원경비 2명이 즉시 제거하여 피해는 별로 없었다.

토론토·선지 새 편집인

41살의 바바라·아미엘여사

◆선지의 새 편집인 바바라·아미엘씨

바바라·아미엘씨가 내년 1월1일부터 토론토·선지의 편집인이 된다.

올해 41살의 아미엘여사는 수년간 선지의 부편집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컬럼을 가져왔다.

선지가 창간될때 부터 편집인으로 있은 피터·워딩턴씨의 후임으로 앞으로 선지의 논설면을 책임맡게될 아미엘여사는 편집인이 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선지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보다 폭넓은 심층보도와 아울러 더많은 "장난기와 심술"을 가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태어나 1952년 캐나다로 온 아미엘씨는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뒤, CBC방송의 인터뷰어, 맥클린지의 기자로서 일해왔으며, 많은 상을 수상했다.

캐나다달러 일시하락

25일 80.97센트 기록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던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7주만에 처음으로 미화 81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25일 외환시장에서 캐나다달러는 미화 1달러당 80.97센트로 거래됐다. 그러나 하루전인 24일의 종장시세는 81.89센트였다.

24일 하룻만에 캐나다달러가 0.33센트이상 떨어지자,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캐나다는 캐나다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캐나다달러 가치의 하락은 추수감사절때문에 미국이 무역활동을 삭감시킨데 따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금융계 옵저버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주의 가차하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달러는 당분간 80~81센트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금주의 행사▶ —11월29일(월)~12월5일(일)—

◆11월30일(화) 하오7시 대각사행사
입술년 삼동결제
곳 : 대각사(11 Dawson Ave.)
연락처 : 463-8998

◆12월1일(수) 하오6시 파티겸 강연회
토론토대학한국학과후원재단 주최
연사 : UT 행총장·조성옥박사
곳 : UT Hart House East Common Room
회비 : $20
연락처 : 621-0323(윤 여화)

◆12월3일(금) 하오7시
서울사대부고 망년파티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960-5736, 844-0178(김 인규)

◆12월3일(금)하오6시 COSKA 정기총회
곳 : 그라나다식당(920 Yonge St. Tor)
회비 : $7
연락처 : 492-9889, 968-7122

◆12월4일(토) 하오8시 한인합창단「메시아」대연주회
곳 : 메시홀(Victoria & Shuter)
입장료 : $12, $11, $8
연락처 : 222-4662(Mrs. 김) 222-2901(Mr. 리)

◆12월4일(토) 정오 한인볼링협회주최 코리안컵 볼링대회
곳 : Pro 10 Pin Bowl(877 Wilson Ave.)
참가비 : 개인 $7, 혼합 $10, 단체 $50
연락처 : 249-3039(Mr. 박)

◆12월4일(토) 하오6시30분 휘문고교동창회, 휘문 성탄파티
곳 : 돈밸리 홀리데인 인(돈밸리×에그링톤),
연락처 : 827-5222(Mr. 표)

◆12월4일(토) 하오7시 성동고교동창회
곳 : 그라나다식당(920 Yonge St. Tor)
연락처 261-0739(Mr. 함)

◆12월4일(토) 하오8시 선린고교동창회, 년말파티
곳 : 오영준 동문댁(15 Painted Post Dr.)
연락처 : 255-2111(Mr. 전)

오늘의 예금금리(11/18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10.5%		9.5%
90일	11%		10%
180일	11%	10.75%	10%
365일	11%	10.75%	1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 1692
R 245 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나이아론드·순금
반봄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여직원 채용공고

새로 설립예정인 캐나다한일은행 토론토 지점에서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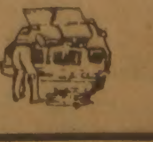
— 아 래 —

1. 모집구분 : 여자 Teller 약간명.
Key Punch Operator 1명
*은행업무 유경험자 우대
2.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사진 2매
3. 제출기한 : 1982년12월5일
4. 제출장소 HANIL BANK TORONTO REP. OFFICE, P.O. BOX 94 TEL : (416)865-0456 ROYAL BANK PLAZA SOUTH TOWER TORONTO, ONT., M5J 2J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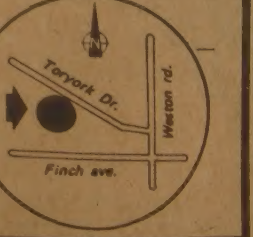
카나다 한일은행
HANIL BANK CANADA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FOREST GLEN SEAFOOD

연말 연시파티
연회용 횟감

(파티용 TRAY는 3일전 예약바람)

■횟감 : ●연어 ●튜나
■신선한 생선 : ●아지
●가재미
●동태
●새우
●물오징어
항상 준비되어 있읍니다.

(주문에 배달합니다)

임효빈 624-3092
3413 FIELD GATE DR. MISSI.
(블로어와 덕시에서 2블럭 동쪽에 위치)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출근길 교포할머니 횡사

횡단보도 무시, 길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쳐

아침일찍 베비시터를 하러 출근하던 교포할머니가 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하룻만인 24일 아침 병원에서 사망했다.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한덕창 부위원장의 부인인 허복실할머니(65)는 23일 아침 6시55분경 출근길을 서두르며 1775 에그링톤·애비뉴·웨스트에 소재한 아파트(417호)를 나와 급히 뻐스를 타려고 차도를 곧바로 질러가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76년형 밤색말리브)에 대퇴부가 받혀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직후 앰브란스로 로렌스·킬부근의 노스웨스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사들의 권유로 다시 교통사고전문병원인 웰슬리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차에 부딪친 순간 동맥이 끊어져 출혈을 많이 한 허노인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뇌출혈로 24일 새벽 1시45분 전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그동안 교포노인들이 교통규칙위반등으로 많은 사고를 당해 심지어는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 노년회 서혜석간사는 특히 겨울철에 길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져 교통사고를 자주 당한다면서 노년회원들의 교통규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고를 수사중인 제1교통경찰서(1 District Traffic Unit)는 허할머니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차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과실이 발견되어 아직 사고운전사를 입건하지 않은채 조사중이라고만 말했다.

지난 77년 캐나다에 이민온 한덕창·허복실부부는 2남4녀를 두고 있으며 허씨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베델교회(최상봉목사)권사직을 맡아왔다.

◆손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허복실할머니. 허할머니는 지난24일 아침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했다.

핵연료제조사 발족

85년 준공, 88년 생산

(서울 26일=연합)수입농축우라니움에서 핵연료를 제조해내는 회사가 26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한국핵연료사」라고 불리우는 이 회사는 84년까지 합작회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파트너를 물색하게 된다. 외국파트너는 총불입자본금의 49%에 해당하는 3천7백만 달러를 불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핵연료사는 85년부터 공작건설에 착수하며, 88년에 공장이 준공되면 연산 200톤의 원자력발전소용 핵연료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핵연료사의 총자본금 531억원(약7천130만달러) 중 39%는 한국전력, 나머지 12%는 한국에너지연구원(KAERI)이 각각 출자한다.

社說 경로사상의 과잉발로

4개단체의 양로원 신청건

경로사상의 과잉 발로인가?

아니면 자기 노후가 몹시 걱정돼서인가?

아니면 어떤 이권을 노려서인가?

3만명 토론토교민사회에서 무려 4개의 단체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각기 추진해 왔다.

최근 수십년간 시작된 양로원 사업은 1개 단체만을 빼놓고 나머지 3개 단체가 비교적 은밀한 가운데 일을 벌인것 자체가 불씨를 낳게된 한 원인이다.

한인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한인사회 전체에 공개적이지 않았는지도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다.

27일자 토론토 한국일보 1면 머리에 보도된 양로원 기사는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갈보리장로교회, 동부한인장로교회등 3개 그룹이 양로원을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제4의 그룹 메트로·토론토·코리안·시니어·시티즌스·홈이 작년6월 연방정부 소속 주택공사(CMHC)에 양로원건립을 신청한 사실은 그후에 또 밝혀졌다.

한인문제가 심상치 않음을 안 주택공사특별주택과는 25일 한인그룹들의 신청서를 재검토하다가 유재신박사, 황용현씨 중심의 새그룹을 발견했고, 한인YMCA 와이즈멘즈클럽을 바탕으로 구성된 한인양로원위원회가 이제 신청을 준비중임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론 어느 소수민족 치고 이런 진통없이 양로원을 지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개 1개이상의 단체가 서로 양로원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종국에는 단일 단체로 통합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한인들만이 유독 단결 대신 분열을 좋아해서 이번같은 케이스가 생겼다는 비관론, 동포 저주론, 모욕적 자기 비하론은 모두 부당한 것이다.

반대로 어쩌면 노인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컸던 때문으로 좋게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주택공사측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한인 4개 단체가 모두 의견을 모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이들 그룹이 합동회의를 갖는다면 자기들도 참석해서 단일화 작업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한 단체가 다른 단체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4개 추진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통합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자리에는 토론토한인회도 참여해서 통합위원회가 한인회의 특별기관으로 소속되는 과정을 리드해야 할 것이다.

왜 한인회소속 기관이 되야 하는가? 한인회는 이론상으로나마 불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양로원추진자들이 빠른 시일내 통합작업에 진지하게 참여치 않으면, 연방정자예산 관계로 한인사회로 풀어줄 자금은 한푼도 남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 4개 단체는 그 책임을 두고두고 면치 못 할 것이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의 사나이 <118>

29분의 1 ㉓

馬형사의 유도질문에 옥자는 말려들어…

마인은 되풀이해서 물어보았다.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 없었어요.』

『바른대로 말해야해. 그렇지않으면 알지?』

마인의 왕방울 같은 눈이 한번 굴렀다. 그러자 옥자는 움츠러들었다.

『정말 아무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집에서 나온게 언제였지?』

『지난 6일이었어요.』

『이걸 좀 봐줘.』

마인은 두장의 몽타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두 사람을 잘 살펴봐.』

옥자는 숨을 죽이고 두장의 그림을 살펴보았다. 마형사는 그녀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몽타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몹시 당황해하는것 같았다. 너무 순진해서 표정의 변화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알고 있지?』

마인은 다그쳐 물었다. 그녀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머뭇거렸다. 그것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거짓말하면 너도 잡아갈거야. 감옥이 어떤곳인지 알고있지?』

마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을 열게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참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미 그녀의 얼굴에는 자기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이 사람은 삼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순간 마인은 가슴 속에서 무엇이 푹 부서져나가는 것같은 소리를 들었다.

『삼촌이라니? 누구 삼촌이란 말이야?』

『철민이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아줌마 오빠아니면 동생이란 말인가?』

『오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몰라요.』

『좋아. 그 외삼촌이라는사람 집에 자주 오나?』

『아니요.』

『지난12월초, 그러니까 지금부터 20여일 전에 그 사람이 철민이네 집에 왔었지?』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형사지. 그때 또 한 남자가 있었지?』

『아니요. 남자는 그 사람 혼자 뿐이었어요.』

『그럼 집안에 누구누구있었어?』

『철민이엄마하고 외삼촌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어요.』

『집에서 뭘 했지? 철민이 엄마하고 외삼촌이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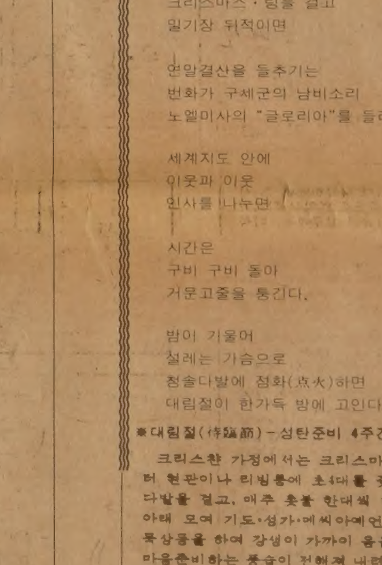
『밖에? 무슨 일로?』

『특별히 일이 있어서 나간게 아니고 아줌마가 돈을 주면서 좀 나갔다 오라고 해서 나갔다 왔어요.』

『음, 그랬었군. 밖에서 얼마나 있다가 왔지?』

『한참 있었어요. 세 시간 넘게 있었어요.』

그정도의 시간이라면 충분히 일을 처리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朴男 그림

저녁 길섶

— 대림절에 —

검돌·이석현

숫자놀이 일상에
비롯된 합장.

시선을 발끝에만 모으는 사이
기도에 군살이 붙어
태양이 멀다.

미래를 여는 들녘에
알파, 오메가가 길을 트는 12월
크리스마스·링을 걸고
밀기장 뒤적이면

연말결산을 들추기는
번화가 구세군의 남비소리
노엘미사의 "글로리아"를 들려준다.

세계지도 안에
이웃과 이웃
인사를 나누면

시간은
구비 구비 돌아
거문고줄을 퉁긴다.

밤이 기울어
설레는 가슴으로
청솔다발에 점화(点火)하면
대림절이 한가득 방에 고인다.

※대림절(待臨節)—성탄준비 4주간

크리스챤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 4주전부터 현관이나 리빙룸에 초4대를 꽂은 상록수 다발을 걸고, 매주 촛불 한대씩 더 켜고, 그 아래 모여 기도·성가·메씨아예언성경 낭독·묵상등을 하여 강생이 가까이 옴을 상징하며 마음준비하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밍크·폭스·세블·라쿤
밍크
록키모피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 0189

올림픽 표장 현상모집

상금은 당선작에 3백만원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정신과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를 상징하는 독창적인 올림픽 표장(Enblem)을 현상 모집한다.

상금은 당선작 1편 3백만원(약 5천달러), 가작 2편은 각 1백만원(약 1천6백달러)이다.

응모요령은 백색 하드보드지를 가로로 사용하여 표장의 규격은 가로 30센티, 세로 21센티, 용지 왼쪽에는 색채로, 오른쪽에는 흑색으로 디자인하며 색도와 작도법 설명서가 첨부되야 한다.

제출기간은 82년 11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20일간), 토론토지역 제출처는 토론토 총영사관(598-4608)이다.

응모작품은 올림픽 마크가 반드시 휘장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타이레놀 새포장 12월중 선보일듯

(뉴·브런스윅, 뉴저지-AP) 지난 9월말 시카고에서 엑스트러-스트렝스·타이레놀 중독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회수했던 존슨·앤드·존슨제약회사는 한때 가장인기가 있었던 타이레놀진통제를 다시 부활시키기위해 안전포장을 한 물론 전국적으로 2달러50센트짜리 타이레놀 쿠폰 2천만달러어치를 배포했다.

물고기 껍질을 이용한 가죽製品생산 성공

어쿼어리스 인터내셔날, 商業性높아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어쿼어리스·인터내셔날 인더스트리사는 상어, 도미등의 물고기 표피를 가공하여 육식동물의 가죽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질기며 보다 유행에 민감하게 대처할수있는 물고기 가죽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동 회사는 류나가죽은 구두제작에, 도미및 난류성 물고기가죽은 혁대, 지갑에, 상어표피는 여행용가방및 가구에 적합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물고기가죽은 가죽제품의 전문생산국인 이태리, 캐나다등에서 감정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고급이고 유행에 민감한 사치품에 쓰일수 있다고 판정받았다.

이 물고기 가죽을 사용한 제품들의 판매활동은 곧 활발해질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일부 물고기껍질을 이용한 가죽제품이 한국을 비롯한 몇개 국가에서 생산 수출되었으나 이번 실험의 성공같이 거의 버리다시피하는 물고기 표피를 사용한 것은 혁신적인 개발로 알려졌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보수적인 英國스타일 올남자패션계에 유행

보수적인 영국식 스타일이 남자양복계에서 올해부터 유행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3~4년은 계속 유행할것이라고 패션전문가들이 내다 보는 이 영국식 양복스타일은 양복자체는 풍성하게 만들어져 움직일 공간을 주며 옷소매와 옷깃의 길이를 줄이고 바지통은 좁게 만든다.

색상은 주로 짙은 색이 많이 사용되며 무늬도 좁은것을 사용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스타일의 변화는 과거 유행된 이태리식의 화려하고 과장된 스타일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반응으로 보여진다는것이 디자이너임규영씨의 풀이.

—〈제5계절〉— 생각하는 삶

김인호(서양화가)

로마의 MARCUS T. CICERO는"VIVERE EST COGITARE"라 했다.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는 말인데, 더 생각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지옥문 위에 홀로 앉은 로댕.

산타크로체 광장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서있는 단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갈릴레오는 기울어진 탑 위에 올라가 돌장난을 했고, 뉴우톤은 떨어지는 사과 속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나?

T.V.스크린 위에 실루에뜨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 사이에 선을 하나 주욱 긋는다. 이것이 나에겐 간단한 선이지만 이차원의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겐 커다란 벽이다. 사실 백년전만해도 인간은 벽속에 갇힌 우주의 구경꾼과 같은 존재였었다. 그러다 몇몇 시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빛의 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신같이 생긴 유태인 한사람이 나타나 인간과 우주사이의 벽을 무너뜨리자, 드디어 우린 사차원의 세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이차원적인 생각은 이제 잠꼬대 같은 소리로 변했다.

◆김인호씨

삶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위대한 경험을 낳는다. 갈릴레오가 돌 몇개 던진 경험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어쩌고 저쩌고하여 천오백년간 한가지 생각만 믿던 사람들을 위협했는가하면, 뉴우톤은 몇가지 생각으로 이백년간 인류의 경험을 지배하다가 마침내 "임금님은 벌거숭이다"고 외친 소년 아인슈타인에게 무안을 당했다.

그리고 후에 이 소년에게서 힌트를 얻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노이로제에 걸리게 했다.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무서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생각을 멀리할 때가 많다. 자신이 맡은역에 충실해서 빨리 안정을 찾아야하고, 익숙한 것은 버리기 힘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생각은 번뇌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구하기 힘들고, 자유는 싸워야만 얻을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 진실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각을 위한 삶을 추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Young Sook's JEWELLERY
각종 보석
다이아몬드, 금, 은, 취급
품질보장/새로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전화문의 환영—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215 YONGE STREET (YONGE & QUEEN)
B) 368-7961
R) 690-5217
대표 민영숙
연말 대매출
▫다이아몬드 ▫흑진주 ▫오팔 ▫비취 ▫싸파이어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보석상이 날로 발전하여 많은 Stock을 갖고 더욱 봉사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일차 왕림하셔서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부모·형제·친지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는 값싸고 좋은 10K Gold. 13불부터 (반지·목걸이·펜던트·팔찌)
선물은 마음의 대화입니다
영숙 Jewellery's는 Toronto Jewellery exchange 안에 있으며, Toronto Jewellery exchange는 토론토의 Discount Jewellery Store입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우수상품제조 자문위해
특수기술 본국초청
내년부터 미주지역교포 연간1백20여명

한국정부는 83년부터 미주교포들중 박사학위소유자 뿐만 아니라 특수분야의 현장기술자들도 한국에 초청 기술개발과 우수상품제조를 위한 자문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재미 한인과학기술자 모국방문단이 상공부와 과학기술처 관계자들과 이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한후 추진되기 시작하여 현재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중이다.

강경식재미한인과학기술자 협회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산업진흥재단도 한국산업계의 기술개발과 우수상품제조를 위해서는 관리자급 현장기술자들의 기술자문이 무엇보다 긴급하다고 인정, 내년부터 재미교포 기술자들을 초청할 계획을 통보받았다

북한측 항의반박
오남철사건 관련

(유엔본부 26일=연합)미국은 24일 최근있는 북한의 유엔상주옵저버단 오남철의 미국여인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경악을 표시하고,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재강조했다.

유엔본부의 미국대표단의 교체대표인 찰스·리센스타인씨는 공식문서로서 배부된 서한에서 북한대표부의 3등 서기관인 오남철의 추행사건은 그가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격의 사건이므로 외교관의 면책특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리센스 '인씨는 또 미국정부가 오를 체포하려고 하는 미국지방 치안당국을 미국정부가 제지하지 않는데 대한 북한의 항의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교민동정

◆김춘탁 (킴스카메라 경영)=두달전 인수했던 버라이터 스토어때문에 블루어의 카메라점을 매니저에게 맡겼다가 24일 다시 킴스카메라로 복귀했다.

버라이어티를 처분한 뒤 다시 사들인 제인과 세인·클레어의 건물을 사서 건물에 딸린 가게를 부인이 운영한다고. 김씨의 전화번호는 534-1085.

달리던차 다이빙
LA교포 둘 익사

22일 하오4시께 교포 이덕순씨(41)와 장현애(50)씨가 하버프리웨이 북쪽방향으로 몰고 가던 차가 하버프리웨이와 샌디에고프리웨이 교차지점에서 방향을 잃으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60피트 아래 수심15피트의 도밍게즈하천에 빠져 모두 숨졌다.

이날 이씨는 직장동료 장씨가 모는 71년도 쉐비카마로 차를 타고 카벨백 노스칼슨의 집을 떠나 브로드웨이와 로스크랜에 있는 실공장 패시픽염사로 가다 변을 당했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차가 3차선의 고속도로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차선을 바꾸더니 갑자기 날으는듯 난간을 들이받고 그대로 다리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이씨와 장씨는 이 직장에서 하오3시30분부터 밤12시까지 일하면서 평소 같이 차를 타고 다니다 이같이 변을 당했다.

그런데 이씨는 한인중앙교회(3726 W. Adams Bl.)선교목사 이수남씨의 부인으로 3년2개월 전 이민왔으며 유족으로는 이목사 외에 2남3녀가 있다.

장례식은 오는 26일 하오2시 한인중앙교회(담임목사·장성)에서 있다.

518-1714(이수남목사)

교포 추락 교통사고—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에 빠진 장현애씨의 차를 CHP와 카운티 라이프가드가 건져올리고 있다.〈TV촬영〉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어느 유학생이 강의 시간에 신세를 졌던 미국인 친구에게 점심을 내겠다고 초대했는데 약속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나타나지를 않았다. 다음날 만나서 「왜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느냐?」 Why didn't you come?이라고 물어 보았더니 I was busy and it slipped my mind 「바빠서 깜박 잊었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와같이 「깜박 잊었다」에 해당되는 말은 slip one's mind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크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주기로 했는데 깜박 잊었다」를 영어로 옮긴다면 I was supposed to call Chris but it slipped my mind, 와 같이 하면된다.

참고로 It slipped my mind.와 같은 말로는 I forgot.이 있다.

A: Oh, dear!
B: What's wrong?
A: I was supposed to call Jom at six
B: Why didn't you?
A: I was busy and it slipped my mind.
B: Why don't you call hom now?
A: 어머나!
B: 무슨 일이야?
A: 6시에 지-임에게 전화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B: 왜 하지 않았지?
A: 바빠서 깜박 잊었어요.
B: 지금 전화하지 그래?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 있다.

ex)I'm supposed to meet Tom at 6.(6시에 Tom을 만나기로 되어있다)

〈발음〉supposed to:「써포우스터」로 발음한다.

Why don't you……; ……하지 그러세요?

ex)Why don't you come in and sit down?(들어와 앉으시지요)

이 연재물의 필자가쓴 「생활영어」1,2,3,4권을 구입하려면 B.C.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S.A.로 수표나 도니오더를 보내면 됩니다. 가격은 권당 12달러(판매세및 우송료 포함) 전화 : (312)966-4050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THE KOREA TIMES
이민의 문화적 • 사회적 자아를 밝혀가는 한국일보 533-2361

性教育 모두 말합시다 ②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아들은 굳건한 男性像 갖게 키워야

사춘기란 아이에서 어른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시작이고 육체적인 변화에 못지않게 정서적인 불안정상태를 가져오게된다. 공연히 무엇인가가 마음에 안들고 불만이 생기게 된다. 이때 그 불만의 대상은우선 자신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 또는 학교교사인 것이 보통이다. 물론 본인들에게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남이 보기에는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일수 있다. 때로는 실상 자기자신에게도왜인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수도 있어 소위 「이유없는 반항」이라고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子女의 이런 상태를 잘 이해할수 있는 父母들이라면 별일 없이 슬기롭게 이 시기를 넘겨 줄수있다.

즉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다든가 야단을 쳐서는 안된다. 그뿐아니라 서로대화를 나누자고 해보아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기때문이다. 이럴경우 父母는 공연히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아야한다. 멀찌기서, 그러나 애정의 표시만은 분명하게 하면서 시기를 기다려 주는것이 현명하다. 그렇지 못할때 하찮은 문제가 예기치 않은 큰 문제로 확대되어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자아내는 예가 없지 않다.

이렇게 사춘기의 父母의 교육은 아이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주게된다. 최근 우리의 생활에 있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父母의 자녀교육에 대한 태도라 할수있다. 즉 子女의 교육이 주로 어머니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어머니에게만 맡겨진 교육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성에관한 교육에는 큰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상당수의 어머니는 성에대해 거의 무지한 상태에있기때문이다.

과거 어머니가 성장하였던 그 시기에는 성은 극도로 죄악시 되어왔다. 더구나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심했다.

여성은 성을 모르는 것이 옳고정숙한것이라고 여겨졌다. 여성들은 결혼이후 남편에 의해 기혼남성의 성의 양상만을 알게 되었을뿐이다. 극히 한정된 지식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미혼남성의 성의 양상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들을 위한 교육(성에 관한)은 커녕, 그 변화를 이해해 줄수만 있다해도 그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최근, 많은 어머니들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듯하여 환영할만한 현상이다. 하나 아직은 극히 제한되어있는 현상일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들의 교육이 어머니 손에 맡겨졌을때 성의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운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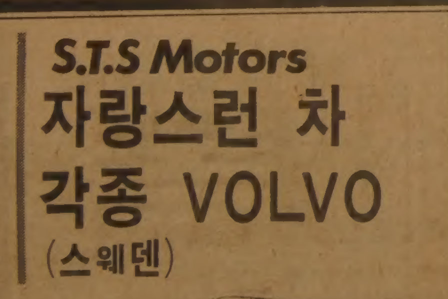
그뿐아니라 아들은 씩씩하고 (조금은 어머니를 실망시키더라도) 남자다운 아들로 자라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어머니 말씀을 잘듣는 女子답고 얌전한 아들로 길러질 우려마저 있다하겠다.

실재 있어야할 男性像과의 사이에 너무 큰 距離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金貞泰
〈醫博·한국人口보건연구원〉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럭건등
판매 · LEASING · 써비스 · 부속파트 · 타이어 · 페인트
S.T.S.MOTORS
전화 : 751-7664 (로렌스 · 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감사말씀

지난 20일 저희 결혼식에 바쁘신 중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축복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오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박필제 홍영미 삼가올림

감사말씀

금번 제5회 한인태권도 대회를 성대히 이끌어 주신 총영사관이하 여러 교민단체 여러분과 특히나 실업인 협회 임원이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11월24일

한인태권도협회
회원일동 드림

"올檢定교과서부터 是正"

日文部相담화 검정基準 개정…初中高 모든책 대상

近現代史 史實을 記述

檢定끝난 책은 83년에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의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文部相은 24일 상오 韓日간 외교문제로 비화됐던 왜곡교과서 시정에 대한 담화를 발표, 일본정부가 한국, 중공등 인근제국과의 국제관계를 고려해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학교교육현장에서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 국제이해와 협조의 정신을 배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담화에서 지난 16일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의 역사교과서검정에 관한 답신에 따라 초·중·고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 『인근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近·現代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담화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작자, 발행자가 검정신청하는 교과서에 대해 새로운 검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담화는 지난여름까지 검정을 끝낸 고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일부 저작자·출판사가 요청하고있는 정오·정정에 의한 시정은 있을수없다고 못박고 이들 교과서에 대해서는 3년후로되어있는 개정검정시기를 1년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종래의 견해를 재확인했다.

文部相의 이담화는 24일자 관보와 25일자 文部廣報에게재, 일본전국교육자에게 그 취지를 알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담화는 지난 8월26일자 미야자와(宮澤喜一)관방장관담화, 11월16일자 교과용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 답신내용을 그대로 반복한데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정방침에대해서는 일체 언급이없어 여전히 문제를 남겨놓고있다.

在日동포 法的지위向上노력

全대통령 거류民團대표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24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청와대에서 在日거류民團의 張聰明단장을 비롯한 각지방본부및 支部간부등 民團간부본국연수단 1백73명을위해 다과를 베풀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격려의 말을통해 『일본은 地理的으로 우리와 가장가까운나라이지만, 韓日國交정상화이후 지금까지의 양국관계가 항상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만 전개돼왔다고는 말할수없을것』이라고 지적, 『그러나 정부는 긴안목에서 우호적인 韓日관계의발전을위해지금도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또한 韓日관계에서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우리동포의 法的지위및 복지향상문제에 대해서도 깊은관심을갖고 많은연구와 노력을 아끼지않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美옥시덴털 그룹 해머會長을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美國옥시덴털 그룹의 아르만·해머회장과 알버트·고어부회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金메달選手에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4일 아시아경기대회 수영여자배영 2백m와 사격자유소총 3자세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차지한 崔允喜 尹德夏선수에게 축전을보내 치하 격려했다.

高所得세율 細分化

稅法小委 주요爭點 合意못봐

국회財務委의 稅法심사小委(위원장 金鍾仁의원)는 24일 상·하오에걸쳐 稅法개정안에대한 절충을 계속했으나 소득세累進단계를 15단계로하고 高소득층의稅率을 細分化하는등 일부에만 의견접근을 보인채 나머지쟁점부분에는 견해차를좁히지못했다.

李鍾贊民正黨총무 李東鎭국민당총무 趙重衍民韓黨부총무등은 이날하오늦게 운영위원장실에서만나 稅法案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못해 25일상오11시 정식총무회담을 열어 정치적절충을 하기로했다.

稅法小委가 타결을 보지못함에따라 이날부터 計數조정작업에 들어가려던 豫決委는 民韓黨이 명단을 제출하지않아 小委구성을 하지못했고 實名制법안을 다룰 예정이던 재무위 전체회의도 열리지못하고 25일로 연기되었다.

한편 小委는 소득세최고세율을 課標6천만원초과에 55%(정부案50%)로 上向조정하고 課標단계도 정부案의 14단계에서 15단계로 확대키로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小委는 또 법인세율에 있어 課標5천만원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案대로20%의 稅率을 적용하되▲과표5천만원이상의 기업에는 30%▲자본금50억원이상의 非上場대기업에는 33%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법인세율은 정부안보다 8%상향조정된것이나 民正黨이 당초修正의견을 제시했던 10%線보다는 2%가 밑도는것이다.

小委는 또 근로소득세공제액 최저한도를 현행88만원에서 94만원으로 올리고 稅額과 교육비공제액을 약간인상한다는데 대체적 의견접근을 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民正黨은 民韓黨등 야당측이 소득세부문에서 1천5백32억원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소득세율의 조정으로 증대되는 1백46억원내에서 자체조정해야한다』고 맞서 합의를 보지못했다.

또 民正黨은 附價稅법개정안의 계류를 주장하고 있는데 民韓黨등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金국무총리

金總理, 내달 南美3國순방

6일부터 11일간 콜롬비아·페루·칠레 公式방문

金相浹국무총리는 오는12월6일부터 16일까지 부인金仁淑여사와함께 콜롬비아, 페루, 칠레등 南美3개국을 공식방문한다.

국무총리로서는 南美를 처음으로 방문하게되는 金총리는 콜롬비아의 벨리사리오·베탄쿠르, 페루의 페르난도·벨라운데·테리대통령, 칠레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우가르테대통령등 순방국의 정부및의회지도자들과 만나 우리의 평화통일방안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입장을 계속지지해줄것을 요청하는한편 최근의 국제정세와 상호협력강화 방안등을 협의하게된다.

취임6개월만에 南美순방길에 오르는 金총리는 또 우리와 방문국들과의 資源협력 무역증진등 경제협력 증대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金총리의 南美순방은 특히 ▲정부首腦외교를 통한 상호이해증진 ▲全斗煥대통령의 민주통일방안에대한 순방국들의 확고한 지지확보 ▲경제협력및 통상증진 ▲南美지역에서의 北傀활동 봉쇄등의 효과를 가져오게될것으로 기대된다고 외무부당국자가 설명했다.

金총리는 오는12월3일 하오 KAL편으로 출국, 뉴욕을거쳐 12월6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10일부터 14일까지 페루, 14일부터 16일까지 칠레를 차례로방문한다음 귀로에 로스앤젤레스를경유, 12월23일 귀국할 예정이다.

金총리의 南美순방에는 徐相喆동자부장관, 盧載源외무차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 鄭然春공보비서관, 李衍澤총리제1행정조정관, 金奭圭외무부美洲국장, 金恒經총리의전비서관(대리), 金興洙외무부南美과장등 9명이 공식수행하며 經濟人 10명이 비공식 수행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683-2301

日自民黨총재에 나까소네

3候補사퇴 예비選擧壓勝…本選擧없이 首相에

◇일본自民黨총재 예비선거결과

후 보	득 표 수	%
나까소네	559,673	58
고오모또	265,078	27
아 베	80,443	8
나까가와	66,041	7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자민당총재예비선거에서 나까소네(中曾根康弘)행정관리청장관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함에따라 25일 자민당의원에의한 본선거와 자민당임시당대회를거쳐 새총재로 선출될것이확실시됐다.

예비선거에서 압승한 나까소네씨는 새수상으로 지명되면 黨체제를 구축하고 파벌을 초월한 인재발굴에 힘쓰겠으며 스즈끼정권을 계승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까소네 내각이 26일 발족하면 니까이도(二階堂進)간사장을 유임시키고 政調회장에는 현재 스즈끼派에, 총무회장에는 후꾸다派에안배, 黨3역을 구성할것으로 보이며 外相에는 이번총재경쟁에서 겨루었던 아베(安倍)通産相, 에사끼(江崎)전通産相과 사이또(齋藤)전당간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나까소네씨는 이날 집계된 총투표97만1천2백35표(93·1%)중 55만9천6백73표(58%)를 얻었으며 2위는 고오모또 경제기획청 장관이 26만5천78표(27%)를 얻어 나까소네씨보다 약20만표를 뒤졌다. 3위는 아베 통산상이 8만4백43표(8%) 4위는 나까가와 과기청장관이 6만6천41표(7%)를 각각 얻었다.

자민당 의석의분포는 衆參의원 의원중 주류가 2백45명(다나까派1백8명 스즈끼派87명 나까소네派50명) 비주류가 1백32명(후꾸다派76명 고오모또派42명 나까가와派14명) 중간파가 44명으로 주류가 압도적으로우세하다. 비주류3파후보는 예비선거에서 예상보다 대패한데 대한 대책을 협의, 25일에 있을 본선거를 생략, 나까소네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키로했다.

資金출처 철저調査

民韓, 금융實名去來 修正法案 마련

民韓黨은 24일 금융實名去來制에 있어서 新規거래분을 83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요구불 假名예금은 83년7월1일부터 實名化하며, 저축성 假名예금은 滿期到來日까지 假名예금을 허용하되 引出時에는 實名化시키도록 하는것등을 골자로하는 금융실명거래제에 대한 修正법률안을 마련, 25일중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24일 民韓黨이 마련한 수정안은 ▲실시시기는 新規거래의 경우 83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자금출처조사는 면제대상을 제외하고는 전면 철저히 조사하도록하고 있다.

下水道料 징수 내년 10월부터

국회 建設委는 24일 서울·仁川·慶州·釜山등 4개도시는 83년10월1일부터, 기타市郡은 85년1월1일부터 下水道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下水道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國防費 삭감 豫決委 논의

국회豫決委의 與野의원들은 24일 韓銀이 81년도 GNP성장률을 당초 7·1%로 推計했다가 6·4%로 下向확정 발표함에따라 내년도에 산입한 국방비의 歲出부분에서 減額조정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 計數조정小委에서 이부분을 집중심의키로했다.

鄭在哲豫決위원장은 아직 정부측으로부터 GNP下向조정에대한 통고를 받지못했으나 下向확정발표가 사실이라면 국방비예산가운데 세출부문에대한 삭감조정요인이 발생한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民韓·국민당은 이로인해 국방비예산가운데 최소한 2백여억원은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射擊서도 金메달

尹德夏 혼자 2개

사이클 1천m 金永洙 銀

◇사격자유소총 3자세종목에서 북한과 중공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尹德夏。【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聯合】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한국의 尹德夏(28)는 23일 열린 제9회 아시아게임사격 자유소총 3자세 개인전서 1천1백44점을 얻어 강호중공과 북한선수를 물리치고 사격부문서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단체전서도 4천5백34점으로 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24일 사격스탠다드소총 개인전에서 尹德夏가 5백71점으로金메달을획득, 모두6개의金메달을획득했다.

이날 金永洙(21·기아산업)는 사이클 1천m 독주에서 1분10초78로 銀메달을 따냈고 羅權(19·경희대)은 체조 남자 링에서 예상을 깨고 선전, 19·30점으로 銅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현재 한국은 메달 레이스서 금5, 은7, 동8개로 3위를 달리고 있다.

駐韓美軍 안줄여

이글버거國務次官

【워싱턴=AP·聯合】로렌스·이글버거 미국무성 정무담당차관은 한국·일본·인도·파키스탄등 아시아 4개국순방을 마치고 귀국,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주한미군병력을 현재의 3만8천명수준으로 계속 유지할것임을 재다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부구조를 증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글버거 차관은 『한국 정부는 지난1년6개월동안 미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주한미군의 현수준유지는 물론 주한미군의 개선을 위한 증거로 받아들일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이 이문제에 관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있는 것은 태평양정상회담 구상이 …으로 연결되는 쌍무협의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地平線

기술의 발전은 가속화해간다. 19세기때라면 1백년가량이나 걸리던 기술개발이 20세기후반에서는 10년이내에 섭취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불과 10여년앞둔 오늘에는 生物工學이 기술발전의 첨단을 걷는 한분야인듯하다. ▼지난 몇년동안 미국의 大企業은 물론 개인투자가들마저 생물학의 새발전으로부터 利得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가지 모험적사업에 수십억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生物工學기술의 발전이 농업생산성의 향상, 화학품·약품의 새제조방식 그리고 再生可能에너지源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올것으로 이분야 과학자들은 믿고있다. 이같은 가능성은 그일부만이 실현되더라도 生物工學의 商業的革命을 이룩하게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풀이다. 컴퓨터나 電子革命못지않게 인간생활에 영향을준다는것이 生物工學의 미래전망 이다. ▼하지만 生物工學이 人類에 가져다줄 부정적위험부담 요소도 전연 없는것은 아니다. 최근 美下院 과학기술 小委員會에 제출된 美대통령직속 의학관계특별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인간의 유전인자를 동물에 移植, 半人半獸의 雜種動物을 만들어 낼수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 下院과학小委는 나치獨逸이 유태인·슬라브人및 지진아등을 생화학적으로 改造하려했던 前例를들어 유전공학을 惡用할 가능성을 경고하였다. ▼그런가하면 일본정부의 한자문기구는 23일 인간의유전인자를 생쥐의수정란에 移植시키는실험을 승인했다는보도다. 인간에 가까운 잡종동물의 출현가능성을 높여준다할 것이다. 이 경우 유전자接合이 아직은 미생물에 국한되고있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人間 유전자도 직접 조작이 가능해질수있다고 과학자들은 보는 모양이다. 이런 방식은 유전병 치료같은데 큰혜택을 줄지는 모르나, 동시에 무서운 윤리적 영향을 인간사회에 가져올 부차적 위험이 뒤따른다. ▼그 부차적 위험부담은 자칫잘못하면 기술체계의 아나키(무정부적상태)를 초래할지 모를 두려움을 또한 자아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10여년간 기술체계가너무 급격히 발달하여 인간의 주체성이나 생명의 주체성이 위협받음을 느낌마저 들게되었다. 모름지기 과학기술자들은 그 새로운 개발과 진보뿐 아니라 인간·인류의 미래에 관해서도 문명성을 전진시켜주는바있어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는데서 과학기술자들의 높은 면모는 더욱 돋보일것이다. 生物工學이 18·19세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物理學처럼 人類에 공헌할수있도록 하는 짐을 오늘의 과학기술자들은 지고있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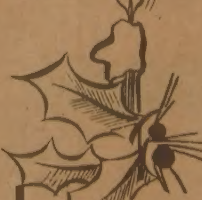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회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대각사
법회안내

임술년 삼동결제를 오는 음력 10월15일 (양력 11월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있겠사오니 사부대중께서 두루 참여 있으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대각사
신도회 드림

장소 • 대각사
11 Dawson Ave. Tor.
시간 • 11월30일(양력)화
(음력 10월15일)
저녁 7시
연락처 • 463-8998



경동중고교동창회
망년파티

만납시다.
삼각봉의 드높은 기상을 되새기며 송구영신의 뜻깊은 밤을 같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8시
8시~9시 칵테일, 9시~새벽1시 댄스및 여흥
(DOOR PRISE•빙고게임•차이니즈 경매)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 822-5093 강대영부회장
270-0229 김선영총 무

* 이날 새 주소록을 배부할 예정이오니 새로 오셨거나 주소변경된 동문은 12월3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라스베가스 왕복비행기표, 칼라TV등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

경동중고교동창회 회장 이 춘수

무역인협회
망년회

본 협회는 82년도 망년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참석하시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2월12일(일)
오후6시
장 소 : THE OLD MILL
21 OLD MILL RD.
(Bloor St. W.
×Jane St. W.)
회 비 : 1인당 20불
연락처 : 535-3305
535-2091

무역인협회
회장 이영현

美·蘇 새對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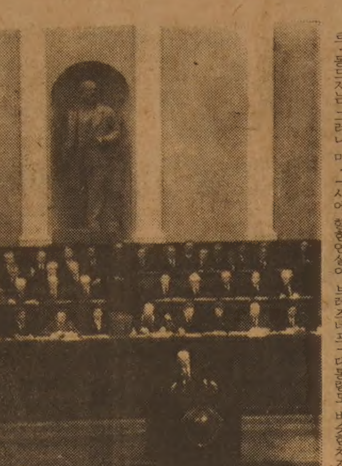
佛 르몽드紙 양국頂上 최근演說 분석

"國內정치상황이 沮害요인"

【파리UPI=聯】 레이건미대통령과 유리·안드로포프소련공산당서기장이 최근행한연설은 美·蘇 두초강대국간에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23일보도했다. 르·몽드지는 그러나 미·소양국지도자가 받고있는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압력이 이같은 의도를 저해할수있다고 말했다.

르·몽드지는 이날 사설을 통해 레이건미대통령과 안드로포프서기장이 22일 거의동시에 행한연설이 브레즈네프 사망이후 점차 성숙되고있는 양국간의 대화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신문은 안드로포프가 軍部및 생활수준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을 동시에 의식해야할 입장에 놓여있으며 레이건 대통령도 비슷한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압력이 두나라지도자의 의도에 제동을 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내년 經濟개발계획案 보고하는 蘇 국가계획위원장
蘇聯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니콜라이·바이바코프가 24일 개막된 연방최고회의서 83년도 경제사회개발계획 試案을 보고하고있다. 【모스크바24日UPI=聯】

蘇 83년도 豫算발표 總4천7백20억弗

【모스크바UPI=聯】 소련은 23일 신임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국가경제개혁과 농업및 소비재생산증대의지가 반영된 83년도 예산을 발표했다.

소련부수상겸 국가계획위원회위원장 니콜라이·바이바코프는 이날 소련최고회의의 (의회) 석상에서행한 보고를통해 83년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예산안은 24일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련재상 바실리·가르부조프는 이날 83년도 소련국방예산이 82년도와 같은 수준인 2백30억달러로 4천7백20억달러의 전체예산의 4·8%정도가 될것이라고 밝혔으나 서방군사전문가들은 소련국방예산의 상당부분이 여타 부문예산속에 위장 편성돼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蘇 최고幹部會議長에 안드로포프 確實視

【모스크바AP·UPI=聯】 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는 23일상오(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개회된 소연방최고회의에서 간부회위원에 선출됐으며 곧 국가원수인 간부회의장에 선출될것이라고 소련관리들이 밝혔다.

안드로포프와 함께 간부회의장 물망에 올랐던 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와 蘇정치국원 콘스탄틴·체르넨코는 간부회의장의 필요조건인 간부회위원에 선출되지 않았다.

모스크바의 서방 외교소식통들은 『현재 간부 회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안드로포프밖에 없다』고전제, 『그가 간부회의장이 되리라 장담한다』고 말했으며 다른 관리들은 『안드로포프가 간부회의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논평했다.

이 23일 개회되어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최고회의가 간부회의장을 언제 선출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관측통들은 간부회의장 선출이 연기되면 크렘린내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일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안드로포프의 간부회의장선출은 확정된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식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波 내달13일 戒嚴해제할듯

【바르샤바=聯】 폴란드군사정부는 현재의 모든 국내상황으로 미뤄 계엄령실시1주년이 되는 오는 12월31일을 기해 계엄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폴란드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23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서방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내의 모든 조짐들을 살펴볼때 12월13일 계엄령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潽善 前대통령 오늘하오에 귀국

尹潽善前대통령이 40여일간의 해외여행을마치고 25일하오7시20분 空路귀국한다.

尹前대통령은 지난10월14일 부인孔德貴여사및 民韓黨의 尹起大의원등과 함께 出國, 母校인 英國의 에딘버러대학을 비롯, 유럽과 美國각지를 여행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인터뷰 "大賞은뜻밖, 버선발 出演"
하와이歌謠祭 그랑프리 尹福姬

지난21일 하와이에서 열린 제1회 하와이국제가요제에서 「나는 당신을」(尹恒起작사·작곡)을 불러 그랑프리 (상금1만달러)와 최우수가창상 (상금1천달러)을 받은 가수 尹福姬양이 23일밤 귀국했다.

『그랑프리는 예상밖의 영광이에요. 大賞에 앞서 최우수가창상 수상자로 발표가되길래 체면유지는 했구나 생각했는데…』

尹양은 격친수상의 감격을 되살리며 말끝을 흐린다.

하와이 국제가요제는 美NBC방송이 올해 제정한 세계규모의 음악 페스티벌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홍콩 필리핀등 9개국이 참가했다.

노래실력은 물론 무대매너, 관중의 반응, 가사전달등을 컴퓨터로 채점했는데 노래가 끝나자 관중들은 『한국에도 저런 가수가 있느냐』며 우뢰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여러분」으로 그랑프리를 받았던 尹양은 연예인교회 집사답게 수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번가요제에 헐렁한 흰색남자한복과 버선발차림으로 출연해 관객들의 눈길을 모았다.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14選관록 「青年장교」別名

日首相자리 오르게될 「나까소네」

行動力탁월… 28세때 衆議院진출

政治變身의 名手로 英語에 능통

일본自民黨총재선출때마다 물망에만 오르고 쓴잔을 마셨던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63)행정관리청 장관이 이번에는 드디어 「수상의座」에 오르게 됐다.

나까소네 차기수상은 기발한 아이디어와함께 경륜을 제시하며 행동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청년장교」라는 별명이 붙었다.

東京大 법과를졸업, 고등고시에합격한뒤 내무성관료와 경찰청간부로 일하다가 47년 28세의 젊은나이로 중의원에 진출한이래 14選의 관록을 쌓았다.

그는 黨총무회장, 통산상, 운수상과 과학기술청장관을 거쳤으며 미끼(三木)내각때에는 자민당의 實權자인 간사장까지 역임, 차기수상감으로 늘 손꼽혀왔지만 그때마다 黨幕체제라는 명분하에 제3자에게 양보해야했다.

제1, 2차 다나까(田中)내각때에는 통산상을역임, 후꾸다(福田)행정관리청장관, 미끼부총재, 오오히라(大平)외상과 함께 다나까내각의 기둥역할을 했다.

스즈끼수상을 제외하고 일본수상은 모두 외상과대장상을 필수과목처럼 역임했다는 점에서 나까소네총재탄생은 스즈끼수상과 함께 예외에 속한다.

또한 나까소네씨는 요시다(吉田) 기시(岸) 이께다(池田) 사또(佐藤) 다나까, 후꾸다, 오오히라, 스즈끼등으로 연결되는 保守본류가 아니라 아류란는점에서 권좌에서 경원시되어왔으나 이번에는 주류3파의 지원을받아 수상자리에 오르게됐다.

스즈끼, 다나까, 후꾸다, 나까소네, 고오모또(河本)등 5大파벌중에서 오직 나까소네派만이 아직껏 수상을 내지못하던 참이었다.

소수파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自派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나까소네씨는 항상주류편에 속해왔다.

다나까가 집권했을때는 다나까, 오오히라와함께, 스즈끼정권이 탄생했을 때에는 역시 다나까와 함께 주류에 몸담았고, 미끼내각때 다나까派와 우호관계를 맺고 스즈끼이후의 정권의 꿈을 키워왔다.

나까소네씨가 이렇듯 항상 주류에 붙고 주변정세판단이 빨라 정치적 變身에도 그밑에서 간사장을지내면서 주류쪽으로 기울었다.

80년오오히라派와후꾸다派가 「40일抗爭」을 벌였을 때는 한때 非주류에 동조했으나 80년5월오오히라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자 나까소네씨는 非주류에서 전향, 오오히라와다나까派에 접근했다.

스즈끼정권이 발족한 후에도 나까소네씨는 계속 을 거듭해 왔다는 점을 지적, 「바람개비」라는 달갑잖은 별명을 듣기도한다.

그러나 保守본류가 아닌 소수파인 나까소네씨가 정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그는 스즈끼수상이 81년 1월 동남아제국을 순방했을때 임시수상직에 임명되어 단연 포스트·스즈끼의 유력자로 등장하기도했다.

그는 일찍부터 수상공개선거를 주장, 密室정치타파를 호소했으며 참신한정치를 실현하여 젊은이의참여에의한 밝은정치를 주장해왔다.

스즈끼 내각의 행정관리청장관으로 入閣후부터 도꼬오(土光)임시調査회장과 이나야마(稻山)經團聯회장의 긴밀한협조로 재벌과의 우의가 두터워져 재계에서도 나까소네수상 탄생을 바라는 경향이 높아났다.

다나까수상이후 역대 일본수상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사람이없어 선진국 7개국 정상회담에서 여섯사람의 정상이 농담으로 모두 웃을 때에도 일본수상만이 웃지않고 입을다물고 있다는것이 중평이었으나 나까소네는 자기의사를 영어로 구사할수있어이러한폐단은없을것같다.

나까소네씨는 정치인은 늘 젊은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가까운 체육관을 드나들며 젊은이와 함께 땀을 흘리고 대화를 즐겨 나누고 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유화를 즐겨 그리며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예술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있다. 불교신자이고 1남1녀를 두고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5>
朴婉緒 作

부드러운겨울 ①

『전화예요 사모님』

식모애가 안방을 기웃하더니 빼어놓은 전화코드를 꽂아서 수화기를 넘겨주었다. 수지는 며칠째 몸살이었다. 자신의 내부의 혼란을 그렇게밖에 처리하지 못한것이다.

『병환중이라고 그러랬잖아?』

수지는 일부러 빼어놓은 코드까지 연결해주며 전화를 받게하려는 식모애를 짜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외삼촌인데요?』

수지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아, 오빠세요. 저예요. 오빠가 웬일이세요? 전화를 다 해주시고. 언니랑 아이들이랑 다잘 있구요. 한번간다 간다 하는게…부모님 안계신 친정이라는게 다그런거 아뉴. 오빠, 그리고 나 요새 좀 몸이 안좋아요. 큰병인 것 같진않구. 아마 몸살이나 독감이나 뭐 그런건가 봐요. 덕택에 잘 쉬고있어요. 그동안 무병했드랬죠 뭐. 몸은 편해 좋은데 일밀려 큰일났어요. 제가 관여하는 일이 좀 많아요. 학교도 학교지만 내 수완에 매달린 고아원, 유아원만도 몇개라구요. 몸 털고 일어나기가 무섭게 배로 뛰어야지요 뭐. 언니도 좀 내보내세요. 오빠 어쩌면 그렇게 고루하우. 여자도 바깥바람도 좀쐬고 남을 위하는 일이나 돕는 일을 통해 사는 보람을 새롭게 느낄 필요가 있다구요. 저 몸털고 일어나는 즉시 언니 먼저 끄실테니 그런줄 아세요. 돈도 좀 들일 각오를 하시구요. 그래도 계하고 보석사고, 옷 마추느라 큰돈 없애는 여자보다 백배 낫지 뭐유? 오빠처럼 지독한 구두쇠가 꽁꽁 움켜쥐고 있는돈 그렇게 해서나 소득분배가 좀 이루어질게 아뉴? 호호호…』

수지는 수철이 한마디도 말할 겨를을 주지않고 물흐르듯 유창하게 지껄이고 나서 공허한 소리로 웃었다.

『얘가 누굴 놀리고 있나?』

웃음끝에 허둥지둥 무슨 말이든지 또 이으려는데 수철의 심히 못마땅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는 그저 소득분배라면 벌벌 떨더라.』

『너 요전에 부탁한 건 실없는 소리였구나?』

『요전에 부탁한 거라니요?』

『너 정말 어디가 아파도 단단히 아픈가 보구나. 병원에 가봐야겠다. 전화끊는다.』

『아, 아녜요. 오빠 그냥 끊으시면 어떡해요? 제가 요전에 부탁한 게 그러니까…』

수지는 갑자기 탄성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손끝과 가슴이 떨리는 걸 진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시 다음 말은 떨렸다.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당장 서류를 해들이래. 이달 안에 떠나는 케이스가 있대나봐.』

『확실한가요?』

『내가 너처럼 실 없는 줄 아냐?』

『제가 언제 실 없게 굴었다구 오빤 자꾸 그러세요?』

수지는 잦아드는 소리로 가까스로 중얼댔다.

『제서 더 어떻게 실 없게 구냐. 며칠전에 그 부탁할때만해도 오죽 애걸을 했냐? 생전 그런 일 없던 애가 눈물을 다 보이면서 신당부 하길래 꼭 해줘야할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줄 알고 나 역시 안하던 청탁을 해서 겨우 성사시켜놓으니까 지금 와서 시침을 떼니, 내 체면은 뭐가 되냐?』

교민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가 한인전용 양로원 건립을 위하여 모금을 시작한 이래 교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0월2일 써니부룩공원에서 있었던 워커톤대회에 참여해 주신 교민들, 스폰서가 되셔서 금품을 회사해 주신 2,500여명의 교민과 단체들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워커톤대회의 결과는 작년모금액과 합하여 약2만5천불(약정금액 포함)의 기금이 확보 되었읍니다.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전문변호사및 Consultant의 자문을 받아 연방정부와 기타 관련기관에 연리 2%의 양로원 건립자금 융자및 무상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13일 갈보리장로교회(안병한 목사 시무)로부터 동교회에서 양로원 건립을 추진중이며, 금년봄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CMHC)에 자금지원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아울러 같은 목적의 일을 여러단체가 하는것 보다는 두 단체가 힘을 합쳐하자는 제안이 있어 10월15일및 22일 대표자회의를 가졌읍니다.

본 위원회는 온타리오정부 사회봉사성의 권고와 본위원회 자문위원들의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본 위원회의 사회기여및 신용도가 확고해지고 필요자금이 어느정도 확보되었을때 CMHC를 통한 자금보조 신청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갈보리교회와 타협하려 노력했읍니다.

(가)쌍방이 양로원건립 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장단점을 검토 상호보완한다.

(나)양로원건립기관으로 제3기관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한인양로원건립재단을 한인사회에 개방하여 재조직, 그들로 하여금 양로원건립을 추진하도록한다.

(다)쌍방은 실무자를 참석시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

(라)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권리는 한인사회로 돌린다.

불행하게도 갈보리교회는 전교민의 이익보다는 동교회의 재산권을 강조하고, (1)본위원회가 동교회에 흡수되어 동교회의 사업을 도와줄것과, (2)양로원설립후의 모든 재산권은 동교회로 귀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읍니다.

교회위원들과 타협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병한목사님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시도했고(10월25일) 수차에 걸쳐 담당자들과의 대화를 모색했으나, 여의치 않았읍니다. 교회가 전도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양로원을 운영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한인사회에서 이미 공개적, 범교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외면하고 단독적으로 양로원을 짓겠다는 의도가 수긍이 안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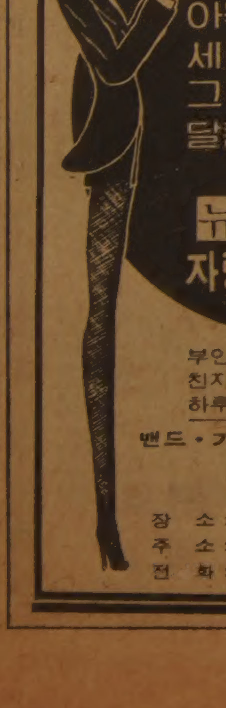
교회가 자체자금으로 양로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면 탓 할 수도 없고, 탓해도 안될것이나, 교민의 이름을 앞세워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양로원을 짓고 그안에 교회를 차리겠다는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읍니다. 더우기 갈보리교회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토론토에 있는 40여 한인교회들이 교회를 갖기 위한 방편으로 너도나도 양로원건립자금보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분열상들은 수치스럽지 않겠읍니까?

우리가 양로원하면 올데갈데 없는 무의탁 노인들이나 들어갈 곳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읍니다만, 이곳 양로원은 노인아파트(Senior Citizen Home)와 양로병원(Nursing Home)이 종합 운영되고 있어 우리들도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곳이고, 또 그러한 제도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한인 양로원의 건립은 이질문화권속에 살고있는 우리 한인들의 미풍양속을 보전 내지 전승시킬수 있는 의무를 지녀야 하며, 또한 이민1세를 위한 한인전용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가 단독 소유 운영할 성질이 못되므로 범교민적으로, 범교민적인 단체에 의하여 전교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양로원건립은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온 교민이 일치단결하여 한방향으로 노력할때 겨우 결실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교민여러분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근래 갈보리교회에서는 정부로 부터 1천만불을 받은양 선전하면서 교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1차 신청서 제출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이며, 1천만불을 받게 되었다는 선전은 기초자료 조사및 확보를 목적으로 한 교민 우롱적 소치임으로 교민들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 회장 천 중 환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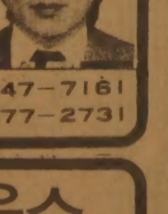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편만두 ●짜장면 ●우동
536-7311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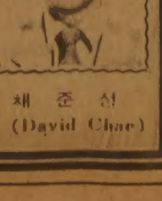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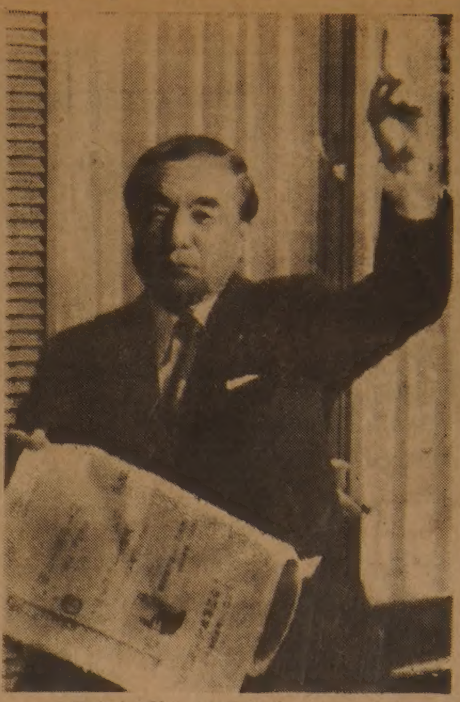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선
(R) (416)633-7892 (David Chae)

「防衛力증강」내세운 강력한 매派
親美知韓…右旋回 박차

나까소네의 政治觀

韓·日經協적극자세
個人교수까지 두고 한국말공부
親西方외교를 重視



◇「넘버 원」나까소네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日本行管廳장관이 24일 자민당총재예비선거조기개표결과 다른3후보를 누를것이 확실시되는가운데 자택에서 기자회견도중 「넘버 원」을 그려보이고있다。【東京24日 AP電=聯合】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행정관리청장관은 역대 일본수상중 가장 매派에 가까운 정치가라는것이 定評이다.

방위청장관을 역임한 그는 누구보다도 일본열도 방위문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있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나라는 될수있는한 자기가 지킬태세를 갖춰야한다』고주장, 방위증강에 앞장서 왔다.

나까소네씨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도록규정한 일본헌법9條는 이미 30여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않고 많은 일본국민이 자위대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이상 평화헌법을 고쳐 정정당당히 자기나라를 지키기위한 군비를 정비해야한다는것이 그의 논리이다.

나까소네장관은 무척 원칙론적인 정치인이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도했던 그의저서 「保守에의 倫理」에 의하면 정치인은모름지기 끝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깨끗한정치를 지향해야하고 젊은이와의 대화와 이상을 부단히추구하여 새로운정치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까소네씨는무책임하고 선동적인 혁신정치 보다는 책임있고 현실적인 保守정치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자기혁신없는 保守는 침체와 부패로 사회를 정체시킨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런 立論에서 그는 국민에게 인기를끌기위한 무책임한 발언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않고 관철하는 정치가를 표방하면서 평화헌법개정에 의한 국비증강론에 앞장서왔다.

안보외교면에 관해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全方位외교에서 한발 물러나 親西방외교를 중시하는 외교좌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까소네씨는 일본의 안전보장은 어디까지나 美日안보조약을 基軸으로한 美日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對美외교를 최우선과제로 꼽고있다.

그는 美日협력을 주축으로한 安保외교에이어 韓日외교협력을 바탕으로 이를 아시아외교로 폭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나까소네씨는 두달전부터 가정교사를 두고 한국말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일본수상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을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한다』면서 요즘엔 한국노래가 취입된 테이프를 곧잘 듣는다는것이 그의 측근들의 얘기다.

나까소네 장관은 韓日두나라는 숙명적으로 협력해야 할수 밖에 없으며 韓日협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과의 경제마찰을 해소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持論이다.

나까소네씨가 26일 임시국회에서 수상으로 지명된 뒤 스즈끼수상의 미결문제였던 韓日경제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즉각 적극적인자세로 임할것이 예상된다.

나까소네씨는 방위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일년전 중공의 고위국방관계자와 만나 담론하면서 『중공은 땅이 넓어 대륙형인민유격전략을 펴는것이 알맞지만 일본은 바다에 둘러싸여있기때문에 공격형보다는 방어에 주력한 해양형방위전략을 세울수밖에 없다. 더우기 일본의 자체방위능력이 정비되지 않는상태에서는 일본의 방위기본은 美日安保조약에 의한 미국의지원이 절대적이며 미국이 창이라면 일본은 방패와 같다. 공격은 미국이 담당하고 방위는 일본이 담당하는 분담체제를 갖춰야한다』고 풀이하기도했다.

나까소네장관은 스즈끼수상의 계승을 부르짖고있어 지난5월 레이건美대통령과 스즈끼수상과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美日동맹관계의 재확인과 함께 韓日협력관계를 증진할것을 약속하고있다.

1천마일의 해상방위문제에 대해서도 나까소네씨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있어 「방위비 지출 GNP 1%이내」라는 문제를 따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적극적자세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나까소네씨는 『일본을방위하는데 미국에만 의존한다는것은 語不成說이며 자국이 분담할수있는것은 분담해야한다』는 생각에서美日방위협력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국방비의 GNP 1%이내문제에대해서도 국제정세에따라 방위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한다는뜻이지 꼭 GNP 1%선을 고수해야한다는 뜻은 아니기때문에 경우에는 GNP 1%선을 넘어설수도 있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일본의 방위예산이 美英佛 서독등 서방진영열강과 비교해서 결코많은것이 아니며 일본헌법과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어일본의 방위증강을 추진할것이 일본의 안정보장에도 도움이된다는생각을갖고있다.

다나까의 後光과 주휴의 힘에 얹혀 수상의 權座에 오를 나까소네장관은 오는 1월 다나까 전수상의 록히드 재판구형에따라 자민당의 안정에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어쨌든 나까소네정권 탄생은 「강력한 미국」을 들고 나온 레이건 정권에 발맞춰 일본정국이 右旋回하는 분명한 분위기를 반영한것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制度的바탕우선마련

교과서歪曲시정 日文部相담화의 배경

내년7월 첫 結果가 注目거리
執筆者의 바른 記述 前提돼야

일본역사교과서 歪曲문제를 둘러 싸고 지난 4개월동안 벌어졌던 韓日간의 외교적마찰은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일본文部相이 24일발표한 담화내용에대해 우리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일단은 수습될 전망이다.

오가와文部相은 이날 담화문에서 교과용 도서검정기준을 개정, 「近隣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관한 近現代의역사적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라는규정을 추가해 앞으로의 文部省교과서검정은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 또 이런정신이 일선교육현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8월26일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이 『일본정부책임하에 시정하겠다』는 정치적公約을 실천하기위한 행정적인 조치로 그法的인 근거를 마련한것이라고 볼수있다.

일본정부는 이를위한 구체적인 조치로▲官報에는 24일字로 개정된 새로운 검정기준을 게재하고▲문부성의 홍보잡지인 文部廣報에는 8월26일의 미야자와 관방장관담화문, 교과용도서심의회의答申내용, 이 答申을 바탕으로 하고있는 文部相의 담화문, 새로운 검정기준등을 게재, 일선교사들에게 문부성의 지침을 시달할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같은 日문부상의 담화내용에 대해 『일본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日정부의 8월26일字 對韓覺書(是正公約)에 따른 구체적 조치의 일환으로 교과서의 왜곡시정을 위한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 것으로 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성의있게 시정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평가한다』고논평했다.

외무부측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교과서 문제로 인한 韓日간의 외교적 波高가 계속될 경우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돌이킬수없는 금이갈 것이라는 판단에따라 취해진 것으로 볼수 있다.

또 일본측이 일단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의를 보인만큼 앞으로 왜곡시정의 實體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취해진것으로도 풀이된다.

사실 지난 7월말 교과서波動이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飛火된후 韓日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8월3일 정부는 구체적시정조치를 요구하는 (備忘錄)을 전달했고 일본정부는 8월26일 회답각서와함께 미야자와 관방장관을통해 시정을 公約했으며 이튿날 우리측은 정부대변인(李振羲문공장관) 발표에서『즉각시정이 아닌것은 우리기대에 매우 미흡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기까지에 이르렀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결직전의 양국의 최대현안인 韓日經協현상이 중단되고 韓日정기각료회담과 韓日의원연맹총회등이 무기연기되는등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달았다.

양국의 이러한 진통속에서 일본교과용 도서검정심의회는 지난16일▲교과서 記述에있어 韓國 中國등 近隣제국과의 불행했던 과거를 감안, 검정과정에서 이를 국민감정을 배려하도록 새로운검정기준을추가한다▲이새로운 검정기준은금년도검정에서부터 적용한다. ▲이미 검정이 끝난 문제의 교과서(83년검定分)에대한 검정은 당초예정보다 당겨 83년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答申을 文部相에게 통보했고 오가와문부상은 심의회의 자문내용을 받아들여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정약속을 지켜나갈것을 再다짐한 것이다.

◇叙述에 歪曲이 심해 韓日간에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했던 日本 중·고교 역사교과서。

우리정부는『즉각시정이아니면 미흡하다』는 지난8월의 다소 부정적인 자세에서 이번 文部相의 담화에 대해서는「日측이 새로운 검정기준을설정한것을 주목하며 일선교육현장에서 담화의 취지와 정신이 성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것은 오가와文部相의 담화발표에 의해 우리가 만족할만한 새로운검정기준이 마련됐기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정부의 검정제도가 존속돼야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韓日간의 외교적 분규가 양국에 이롭지못하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교과서 왜곡波動에는 문부성이 개입하여 改惡된부분도 있으며 당초부터 執筆者가 記述한것을 문부성이검정의견을 달지않고 무사통과시킨부분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검정제도자체를 비난한것이 아니라 역사적사실의왜곡을 성토한것이며 中共과 日教組등 좌익세력은 검정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던것이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일본정부가 우리정부의 시정요구사항을 어느정도 성실하게 實現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정부가 즉각시정을 요구한 13개項目중 ▲3·1운동 ▲神社참배 ▲創氏改名 ▲土地收奪 ▲朝鮮語말살 ▲징용등 국민감정을 자극한 7개항목은 검정의견으로 改惡된것이기 때문에 시정될것이 틀림없다는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관계자는 檢定官이 검정의견을 붙이지않았는데도 표현이 잘못된 나머지 6개항도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重視한다」는 새로운 검정기준의 취지를 살려 시정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이번에 말썽이된 高校역사교과서는 83년부터 사용되는 것으로 84년12월부터 85년 6월까지 再檢定을 거쳐 7월에 전시될예정이었으나 검정시기를 1년 앞당겨 83년12월부터 재검정에 들어가 84년7월에야 그 결과가 나타나게된다.

그러나 오는 12월중순부터 시작되는 중학교과서에 새로추가된 近隣國우호重視기준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내년7월이면 알수있기때문에 내년에 중학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보면 85년부터 사용될 문제의 高校교과서검정과정도 미리 짐작할수있을것이다.

오가와文部相의 이번담화내용은 일본정부의 왜곡시정을위한 첫걸음이며 또 시정을 위한 방침일 뿐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적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歪曲에 대한 우리의 의구와 분노를 완전히 가시게 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떻든 일본정부가 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상 우리정부도 외교적으로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문제가 短期的으로는 일단락되었다하더라도 일본역사교과서가 檢定이 아닌 認定인 이상 집필자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기술하는게 필요하다. 정부관계부처는 앞으로 日역사교과서의 著者들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그들의 對韓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것이다. 【李在武기자】

第3世界 외교進一步

金총리 南美3國 순방意義

資源협력·通商증진등 협의
太平洋정상회담 構想 거론

金相浹국무총리의 南美순방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전통적인 우방국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이들 나라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순방은 제5공화국 출범후 全斗煥대통령의 訪美, 아세안방문, 아프리카4개국및 캐나다 방문에 이어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제적지위향상과 南美지역에서의 북한침투봉쇄와 對北韓외교優位기반을 계속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들어 非同盟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中南美지역을 국무총리가 첫공식방문함으로써 우리의 對非同盟외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中南美지역은 우리나라가 修交하고있는 1백17개국중 23·8%나 되는 28개국을차지, 한국외교의 중요한 디딤돌이되고 있다는점에서 金총리의 이지역순방은 우리의지지기반을 다지는기회가 될것으로 풀이된다.

金총리의 순방을 前後해 오는 30일부터 12월4일사이에 레이건美대통령이 이지역국가 (콜롬비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혼두라스) 들을순방하는것도 큰관심을 모으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지역순방은 포클랜드전쟁이후 전통적인 이지역의 親美국가들이 脫美경향을 띠며 비동맹외교노선으로 옮겨간추세를 보임에따라 이에 대응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金총리는 이번 순방기간중 콜롬비아의 베탄쿠르, 페루의 벨라운데, 칠레의 피노체트대통령등 3개국 정부및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민주화합민주통일방안등 우리의 통일정책과 제5공화국의 이념등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우위를 다지는 한편 資源협력과 통상증진과 협력강화 방안도 협의 할예정이다.

이러한 경제협력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10명정도의 경제인들이 金총리를 수행, 이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문제등을 타진하게 된다.

金총리가 순방하는 3개국은 모두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국이다. 특히 첫방문국인 콜롬비아는 中南美 여러나라중 유일한 6·25參戰國으로 우리와는 血盟관계를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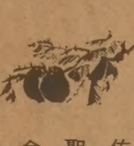
페루는 北韓이 修交를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고있는 비동맹 조정위원회 국가로서 비동맹국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어 페루방문은 우리의제3세계외교에 큰 도움이 될 것같다.

칠레는 강력한 反共국가로서 우리와는 전통적으로 친선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年間 2억달러규모의 교역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나라가 太平洋연안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太平洋정상회담구상도 韓·칠레회담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河長春기자】

메아리

國道



金聖佑
<編輯委員>

오랜만의 지방여행에서 새삼 발견한 것은 감이었다.

버스를 타고 國道를 달려보면 길가는 어디로 가나 감나무들이다. 농가의 마당에도 野山의 밭두렁가에도 빨간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버스에 탄 승객들이 「감보, 저 감들봐」하고 탄성들을 냈다. 올해는 감이 大豊이었다. 가지들이 휘어져 있었다. 시골시장에서는 한접에 1천원짜리도 있었다. 1개 10원꼴이다.

너무 헐값이기는 하지만, 감나무가 없었던들 우리 농촌의 가을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온 山野가 누런 凋落의 빛깔인 때에 감들이 잿속의 숯불처럼 빨갛다. 열매지고 감빛 촘촘히 달린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가을은 참으로 위대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따뜻한 情感과 함께 흐뭇한 풍족감을 주는것이다. 버스에 탄 승객 한사람은 대에 간 아들한테 올해 집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딴해의 2배나 열렸다고 했더니 그 감나무가 보고싶다고해서 컬러사진으로 찍어보냈노라고했다.

사실 감은 유럽에서는 보기 힘든 과일이다. 이탈리아의 소렌토에서 열매가 잔뜩 달린 오렌지나무의 가로수를 보고 탐스럽다고했더니 永同에는 감나무 가로수길이 생겼으니 부러울것 없다.

國道變은 이렇게 情趣가 있어서 좋다.

全長 1만2천㎞의 國道는 아직 포장률이 55%정도밖에 되지 않아 地方道까지 다 포장이 되어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분하기는 하지만, 老松이 기우뚱 늘어서고 수양버들이 하늘거리는 가로수길을 지나갈때마다 위안이 된다. 지나가는 道마다에는 자랑하는 國道들이 있어서 가령 全北에서는 全州—群山간의 벚꽃나무가로수길을 손꼽고 慶南에서는 金海郡 素山面에서 鎭海로 가는 길을 내세운다. 慶北에 갔더니 慶州市에서 府山으로 향하는 중도, 佛國寺앞까지의 文武路가 아름답다고 했다. 은행 나무와 벚나무가 步道를 사이에 두고 雙列로 선 이 시원한 길은 慶州출신 在日동포들의 誠金으로 가로수를 심은것이다.

國道를 달려보니 우리나라의 都市間 여행인구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 도시마다 합승버스정류장은 붐비고 어느행선지를 가는 버스건 수시로 있다. 옛날처럼 덜그덕거리던 고물버스는 볼수가 없고 모두 깨끗한 차들이다. 그리고 버스마다 만원이다.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길을 다니고 있는것일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 非停留的이다. 이젠이 나라의 活力인것 같다. 交流는 이해를 넓히고 격차를 좁힌다. 國道위에 차는 많을수록 좋고 사람은 많이 움직일수록 좋다.

그러고보니 버스에탄 시골사람들의얼굴이 훤해졌다. 시커멓던 옛날얼굴들이 아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대도시학생들과 구별이 안된다. 굳이 찾자면 시골사람들은 아직도 목청이 높다는것 정도랄까.

國道로 버스를 타면 차속의 화제들도 실실하다. 어떤 부인은 며칠전 이웃집에서 딸을 시집보냈는데 4백만원이 들었다더라고 말한다. 시골에서 웬 그렇게 큰돈을 쓰느냐고 물었더니 요즘은 시골사람도 부조금단위가 5천원이니 비용의 절반이상은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 모두 國道의 交流가 준 평준화다.

나라의 動脈으로서 고속도로는 얼마든지 자꾸 닦아야할것이다. 하지만 여행자라면 삭막한 고속도로보다는 가끔 國道를 달리는것도 신나는 일이다. 남보다 하루 먼저 가는것이 인생에서이기는 것이 아니다. 남보다 재미나게 가는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목표만 바라보고 直行하려는 버릇이 있다. 어떻게가든 빨리 가기만하면 된다는 생각들이다. 가장 빠르게, 지름길을 찾아 자동차경주선수들이기라도 한듯이 달리려고 한다. 휘파람 불며 아름다운 가로수사이로 빨간 감들을 더듬고 다니는 國道의 길도 있는것이다.

X머스 보너스 쌀支給검토

比, 공무원들에 豫算적자 深化로

필리핀은 정부예산적자의 심화속에 쌀비축량은 엄청나게 남아도는 실정을 감안, 공무원들에 대한 금년 크리스마스상여금으로 현금대신 쌀을 지급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비즈니스·데이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소식통들을 인용, 페르디난드·마르코스대통령이 예산성에 이문제를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금년에도 풍작을 기록, 현재 60만톤의 비축미를 확보함으로써 금년말까지의 쌀비축량은 엄청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마닐라=UPI】

◇레이건에 贈呈된 칠면조 레이건美大統領이 23일 美칠면조협회가 백악관에 증정한 추수감사절기념 칠면조를 전달받고있다. 【워싱턴23日UPI=聯合】

海外토픽

實戰방불 基地급습

★英SAS特攻대원 訓鍊

英國공군소속의 SAS특공부대는 영국서남해안의 포틀랜드해군기지를 상대로 실전을 방불케한 연습특공기습작전을 감행, 해군기지당국자들을 놀라게했다. 【런던】

14세少年兵 村長임명

이란、이라크占領地 작은마을

이란은 의용군으로 자원한 14세의 소년을 지난 7일 이란군이 점령한 이라크남부의 작은 마을의 촌장에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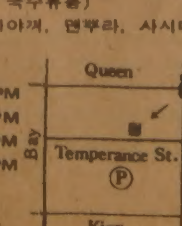
테헤란의 케이한지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정권타도를위해 싸우고 있는 이란군이 최근 공세를펴 이라크남부 알·아마라에서 북동쪽으로 50㎞떨어진 인구8백명의 조로바이다트마을을 점령했으며 이어 군지휘관들이 이라크접경지역인 일람성의 지사와 협의한후에 메르다르·아지쫌라이라는 소년병을 촌장에 임명했다는것. 【테헤란=AFP】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아께,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6-2470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독립기념관이 들어설 충남天原郡木川面일대 구릉지。黑城山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광활한 구릉지 3백여만평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다 (天原군청직원 孫秉東씨가 후보지를 가리키고 있다)。 【木川=李基龍기자찍음】

獨立기념관 후보지 木川을 가다

忠節의 魂 서려있는 광활한 丘陵300만평

天安8㎞ 高速道2㎞의 교통요충

많은 抗日鬪士배출…그대로 史蹟地

"土山에 돌없고 山빛 아름답고 殺氣가 없는…"明堂

충청도사람들을 만나면「충절의 고장」출신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 충남天原郡木川面新溪里에 독립기념관을 세울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충청도민들은『당연한 조치다. 선열들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되찾게 됐으며 우리 고장의 자랑거리가 또하나 늘어나게 됐다』고 하나같이 반가와 했다. 서울에서 1시간10분 거리인 京釜고속도로 天安인터체인지에서 天安3거리로 들어서뒤 비포장길로 20분가량달리니 바로 天原郡木川面新溪里 마을입구가 나온다.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1백10㎞, 天安서 8㎞, 京釜고속도로변서 2㎞지점。

新溪里와 이웃한 南化里·西里마을의 바로뒤편에 해발 5백19m의 黑城山이 평화롭게 누워있다. 마을에서 산길을 차로 20분가량 올라 黑城山정상에 오르면 야산과 동성이가 곳곳에있는 아늑하고 광활한 3백여만평의 구릉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黑城山 바로아래 정남향으로 자리잡은 新溪里(1백20만평)와 南化里(69만평)등이 독립기념관후보지。

黑城山기슭 木川面일대가 후보지로 선택된 기준은 ▲黑城·黑城山의 역사성과 ▲애국열사들이 태어난 忠節의 고장이고 ▲교통의 요충지등 지리적인 여건이라고 天原郡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독립기념관건립소식이 전해진후 天原郡 군민들은 선열들의 후손으로서 긍지를되찾게 됐다면서 환기에 넘쳐있다.

木川面新溪里2구장 趙承旭씨(39)는『선열들의 얼이 깃들여 있는 이고장에 독립기념관이 세워지게되니 선열들도 마음놓고 눈을 감을수있을것』이라고 기뻐했다.

柳寬順열사의 생가를 지키고있는 4촌동생 柳丁鎬씨(66·並川面龍頭里338)는『우리를 비롯한 선열들께서 지하에서 도움을 주신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향인 木川面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木川면장 金振洪씨(52)는『그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주민들이 모두 긍지를 되찾은것 같다. 앞으로 브로커에 현혹되거나 이주문제등에 면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군민들의 기질이 온순하면서도 유사시에 불같이 일어납니다』이렇게 군민들의 기질을 표현하는 柳鎬根天原군수는 독립기념관 모금에서 군세약한 天原군이 도내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자랑한다. 柳군수는 독립기념관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1억원의 모금을 할 계획이고 柳寬順 李東寧 李範奭장군의 동상만큼은 군민의 성금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黑城山은 車嶺山脈이 일시 종착하는 지점으로 조선조지리서인 [illegible]에도「土山으로 돌이없으며 산빛이아름답고 殺氣가 없는 지역」으로 기록돼있다.

산세가 우뚝솟아 독립기상을 상징하기에 알맞고 風水地理說로도 左靑龍 右白虎의 명당이라는 것이다. 또 남쪽으로는 펼쳐진 구릉지 멀리 산이 둘러싸여 案山朝拜(아침마다 黑城山을 향해 절하는 모습)를 이루고있다. 이와함께 산동면의 龍淵저수지와 선조의 지산리저수지로부터 흐르는 並川과 木川이 부지 양편의 南東으로 흐르고 있다.

黑城山이 위치한 天原郡木川面은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이다. 인근 稷山面에는 百濟시대의 溫祚王廟가있고 옛이름이 慰禮城으로 불리고있다. 黑城山 바로옆 聖居山은 高麗太祖 王建이 3천명사와 머무른적이 있었고 全琫準장군이 東學軍을 이끌고 마지막 일전을 겨루기 위해 서울로 진격하다 관군에게 전멸됐던 細城山(일명 屍城山)이 동남쪽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木川面일대는 한말의사등 애국열사들이 많이 태어난곳으로 독립기념관부지로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고있다.

黑城山바로아랫마을로 新溪里 南化里바로 이웃인 西里에 鐵驥李範奭장군생가, 東里에 임시정부초대주석 李東寧선생생가가 2~3백m거리를 두고있다. 또 木川面에서 동남쪽으로 7㎞ 떨어진 並川面龍頭里에는 柳寬順열사와 趙炳玉박사의생가가 한마을에있다. 이부근에는 史蹟230호로 지정된 柳寬順열사유적지와 柳열사가만세를불렀다는 아오내장터가 있다. 이밖에도 壬亂때 晋州城싸움에서 왜적3만명을 물리쳤다는 金時敏장군도 並川面佳田里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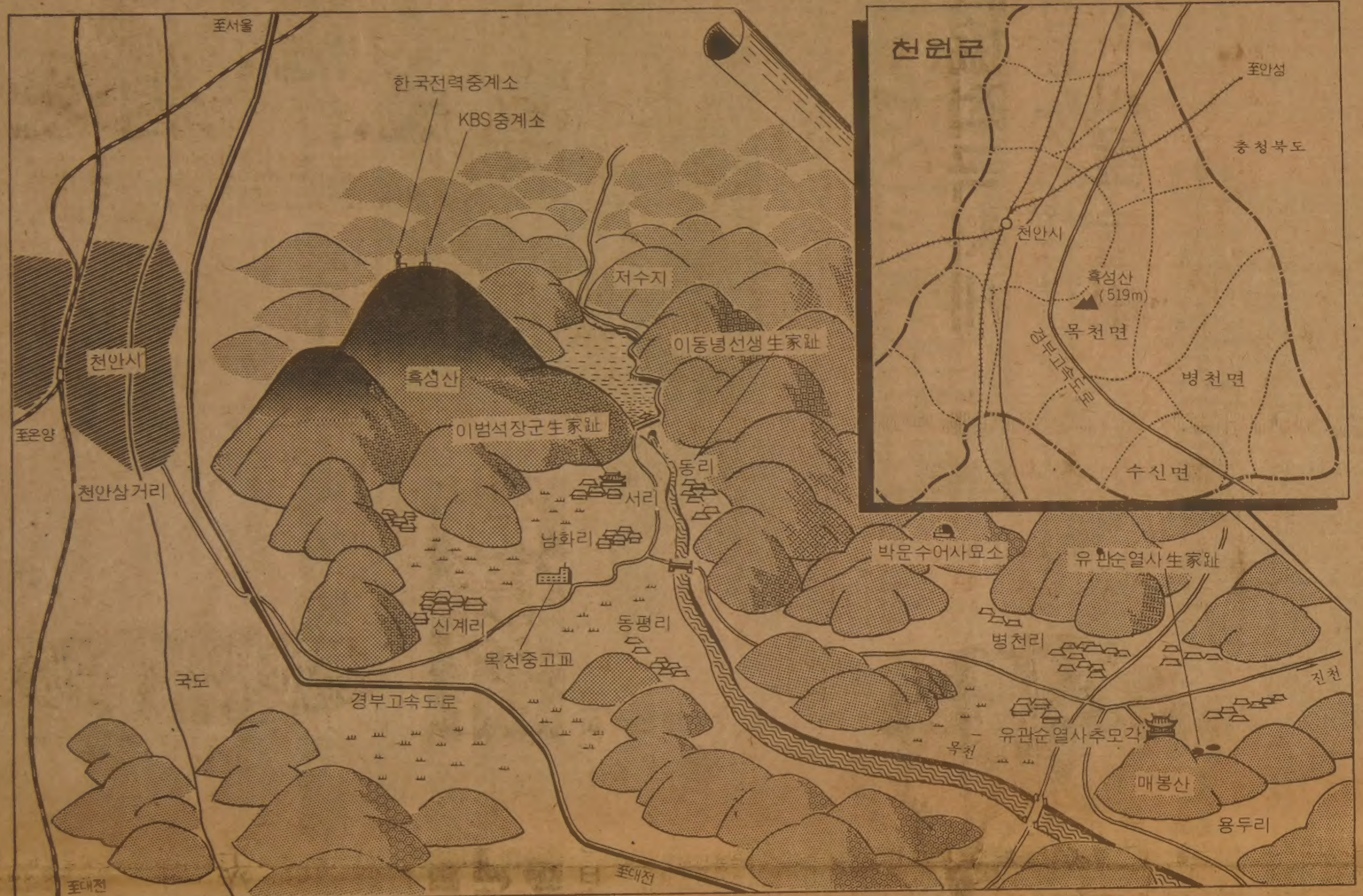
또 주변에는 李忠武公의생가이며 사적지인 牙山顯忠祠, 尹奉吉의사의 사당인 禮山忠義祠, 洪城의 9백義塚등이 있어 항일의 산교육장이 산재해있다.

관광권과도 연결돼 溫陽 道高온천을 비롯 百濟文化圈개발에 따른 公州 扶餘 鷄龍山 甲寺 麻谷寺등지와도 모두 1~2시간 거리다.

교통면에서도 天安 天原이 영·호남의 합류지점으로 京釜고속도로를 바로끼고 있고 [illegible] 등 3개철도의 분기점이다. 原州—長湖院—鎭川—並川—木川에 이르는 국도도 뚫려있으며 京釜고속도로변 木川面[illegible]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서울에서는 1시간10분으로 단축될수 있다.

이곳 주민들은 독립기념관이 민족의 얼을 심을 뿐만아니라 디즈니랜드 같은 종합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로 세워줄것을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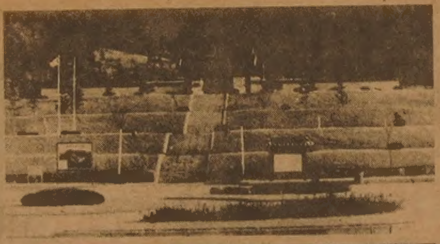
【林承茂기자】



地圖제작=李源存

◇충남禮山의 尹奉吉의사 생가。

◇鐵驥 李範奭장군의 생가。黑城山 바로 밑 木川面西里에 있다。



◇木川부근에있는 並川面塔院里의 柳寬順열사추모각(史蹟230號)。

◇黑城山 아래마을인 天原郡木川面東里에 있는 임시정부 초대주석 李東寧선생 생가。

내년 3월까지 基本설계 名稱등 12월, 1월 공청회

展示館·資料館등 美的공간배치 野外공연장등 慰樂시설도 갖춰 내년11월부터 進入路공사 착공

5천만민족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독립기념관 건립부지가 확정단계에 이름에따라 24일 추진위원회이사진과 기획위원일행은 충남天原郡木川面新溪里 현장을 답사했다.

이들은 여러가지여건을 두루 갖춘 이일대를 독립기념관건립부지로 확정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 사무처는 기본설계모형을 늦어도 내년3월안에 마칠 계획아래 박차를 가하고있다. 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80년대 국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營造物이 되게 하며 기념비·기념관·광장으로 크게 나누기로 한 독립기념관의 당초 시설방향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비는 민족의 독립과 발전의지를 나타낸 조각을 새긴 탑모양으로 제작하고, 기념관에는 전시관, 자료관, 도서관, 극장, 휴게실, 기념품매장등을 설치하게된다. 또 공원과는 별도로 조성할 광장에 야외공연장등을 건설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계획의에 기념관의 명칭과 전시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중순과 1월초에 공청회를 열어 기획위원들의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예정이다. 기념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그동안 항일독립투쟁의 테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사박물관의 넓은 의미를 포괄하자는 여론이 많았었다. 따라서 공청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기념관명칭은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있다.

기념관 사무처에의하면 내년초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시설물의 공간배치등 계획을 놓고 광범위한 여론을 들은다음 3월안에 기본설계모형을 만들기로 했다는것.

이같은 기본도안이 확정될경우 시설물에 대한 기본설계도를 내년9월까지 완성하여 11월중에는 진입로시공을 출발로 기념관 착공에 들어간다.

기념관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오는86년8월15일 완공까지는 수시로 공청회를 열어 그때 그때 광범한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명실공히 국민들의 성금과 민족의 이름으로 건축하는 기념관이 되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ndoor 골프장

긴 카나다의 겨울을 지루하지 않게 한자리에 모여, Swing을 배우고 연습하여 경제적이고 즐거운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①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정도의 거리
②실지 Ball을 사용
③주 1회 이상 Lesson
③월 1회 이상 골프영화 상영
⑤매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음
컴퓨터가 여러분의 Swing을 분석해 드드립니다.

※Member Fee(1982년11월~1983년4월)
$100.- 부부 $150.-

※초보자 특별 개인지도

CHESSWOOD / ALLEN NORTH / SHEPPARD AVE. W. / 401 HWY

1230 SHEPPARD AVE. W.
UNIT 14·15 DOWNSVIEW.

연락장소 : 298-3584 이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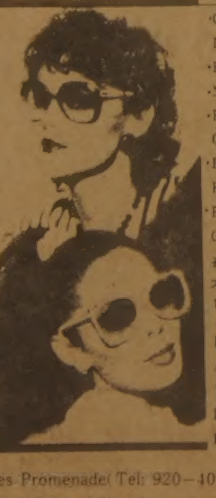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조용하고 아담한 분위기
교통편리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연말·연시 파티는 Macho 레스토랑에서

■메뉴 : 한식, 서양요리 각종주류
■주소 : 4038 GORDON BAKER RD. S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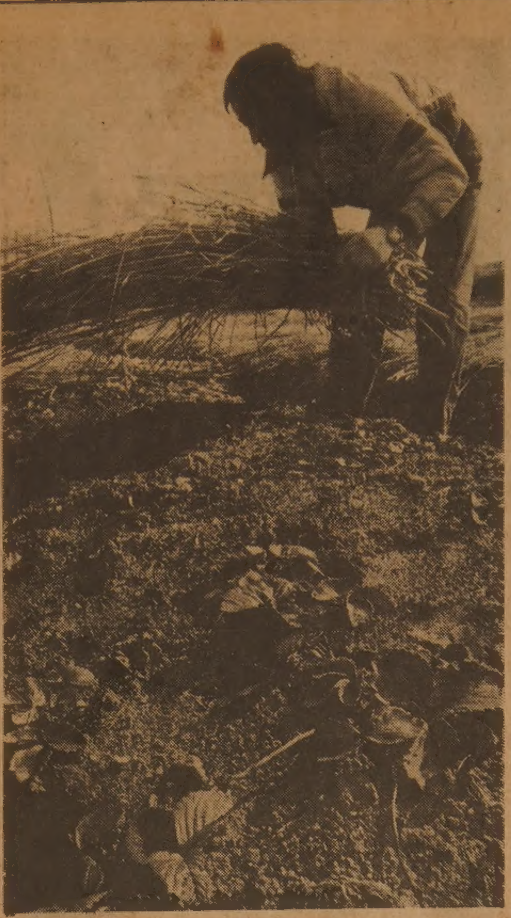
498-1300, 496-2196

MACHO 레스토랑 이해창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 • 3불 (우송료포함)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533-2361



◇零下날씨에 바쁜일손 날씨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자 농부들이 딸기 모종이 어는 것을 막기위해 짚을 덮어주고있다。【경기高陽郡元堂邑新院里에서 韓隆기자찍음】

東洋畵 전문窃盜團 검거

光州 南農·碩星작품등 56점 훔쳐팔아

【光州】光州서부경찰서는24일 동양화 56점 (싯가3천만원)을 훔쳐팔아온 朴在賢씨(25·光州市東區不老洞17)를 절도혐의로, 盧東均씨(30·光州市東區鶴3洞)와 李奎燦씨(26·光州市西區農城洞9)를 장물알선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또朴씨로부터 그림을 사들인 高一洙씨(48·光州市東區錦洞C화랑주인)와 林海澤씨(33·光州市東區大義洞A화랑주인) 등 2명을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鄭一泰씨(36·光州市東區錦洞19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18일밤 새벽2시께 光州市東區錦林洞505 동양화가인 碩星 金玄洙씨(52) 집2층화실에 들어가 김씨의 작품1백여점중 낙관이 찍힌동양화 44점(싯가 1천9백만원)을 훔친것을 비롯, 지난10월14일 새벽1시께는 光州市南區鶴洞37 田泰來씨(52) 집에 침입, 응접실에 걸려있던 南農 산수화4점(싯가 1백70만원)을 훔쳐 팔아온등 지난9월부터 지난18일까지 光州시내 고급주택가를 무대로 6회에 걸쳐 모두 3천만원(동양화56점) 상당의 그림을 훔쳐 팔아왔다는것.

또 盧씨와 李씨등은 절도범 朴씨가 훔쳐온 작품을 넘겨받아 화랑을 경영하는 高씨등을 찾아다니면서 전시회를 열지못해 그대로 보관해온작품이라고 속여 시중가격보다 싼가격에 팔아 넘긴혐의다.

朴씨가 훔친 그림의 대부분은 南農과 碩星등 유명화가들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韓】

마을金庫 여직원 9백만원 횡령

【大邱】大邱시경은 24일 大邱市東區釜洞596 九明새마을금고 전경리여직원 安權花씨(25·大邱市東區新岩3洞185)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경리담당여직원 權敬子씨(20)를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77년9월20일부터 81년1월31일까지 九明새마을금고에서 회계사무를 취급하면서 회원 金모씨(40) 등 고객20명이 맡긴 출자금 예수금등7백42만여원을 16차례에 걸쳐 전표와 원장등 관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빼돌렸다는것.

또 權씨는 지난해5월4일부터 12월30일까지 회원吳모씨(42) 등 고객12명이 맡긴 출자금 예탁금등 1백51만원을 모두 5차례에 걸쳐 빼돌린혐의이다. 【韓】

中高수업료 9%引上

내년부터…中 5만원 高 7만원線

내년도 중·고교수업료가 9%선에서 인상된다. 문교부는 23일 내년도중·고교 수업료 인상폭을 우선 9%선에서 조정키로 하고, 83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전인 내년2월에 경제기획원과 최종협의, 정확한 인상률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4만6천원인 중학교수업료는 5만원선으로 5천원이, 6만4천7백원인 고등학교는7만원으로 6천원정도가 각각 오르게된다.

한편 육성회비 실험실습비등도 함께 오르게돼 중·고교등록금 인상폭은 더욱 늘어나게된다.

문교당국자는 이날 『이같은 인상폭은 지난10월초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때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거쳐 조정결정된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각종공과금 인상을 5%선에서 억제키로 발표한바있다.

이번 수업료인상조치는 전국의 공립중·고교와 고교평준화지역의 사립고교가 해당되며 비평준화지역의 사립중·고교도 관례에 따라 이에 준하게된다.

낮부터는 날씨 풀린다

아침엔 올들어 가장 쌀쌀

小雪(22일)을 계기로 추워지기 시작한 전국의 날씨는 25일상오부터는 차차 풀릴것같다.

중앙기상대는 24일 북서쪽에서 확장된 한랭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틀째 전국에 강추위가 몰고 추위가 계속되고있다고 말하고 25일상오에는 기온이 뚝떨어져 서울중부지방은 예년보다 4~5도 낮은 영하4~5도, 春川영하7도까지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고기압전선이 다소 후퇴하는 25일 하오께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아 추위가 누그러진다.

한편 기상대는 주간예보를 통해 27·28일께 중부 이북지방에 한때 비나 눈이 오겠으며 대입학력고사가 실시되는 내달2일께도 한때 눈이나 비가 오고 기온은 예년보다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일것이라고 내다봤다.

殺身成仁 유족에 慶南道서 보상금

【釜山】경남도는 24일 익사직전의 어린이 4명을 구하고 급류에휘말려 죽은 陝川郡鳳山面吉亭里175 李正甲씨(53) 유족에게 義死者 보상금3백만원을 전달했다.

李씨는 태풍세실호가 밀어닥쳤던 지난8월21일 상오9시께 논물을보러나갔다가 마을안 黃江상류에서 급류를 건너가던 국민학교어린이 4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것을보고 뛰어들어 이들을 차례로 구한후 자신은 숨졌다. 【鄭】

李圭光피고인保釋신청 기각

李哲熙·張玲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는 24일 李圭光피고인(57)이낸 보석허가신청을 기각했다.

李피고인은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전에 보석허가신청을 냈었으나 기각되자 선고후인 지난17일 재차보석허가신청을 냈었다.

마을秋穀수매대금 里長이 횡령

【光州】전남 康津경찰서는 24일 康津郡七良面長溪里이장 李龍泰씨(39)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17일하오2시께 七良面단협에서 실시한 추곡수매현장에서 같은마을 李中九씨(60)의 추곡 22가마등 마을주민 10명이 맡긴 추곡2백10가마를 갖고 공판장 검사를마친후 단협에서 수매대금으로 받은 5백98만7천1백원을갖고 행방을 감추었다는 것.

첫 金銅製 足臺발굴

嶺南大조사단, 林堂7호 古墳서

【慶山】금동관등 국보급유물이 발굴됐던 경북慶山郡慶山邑林堂洞 고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금동제족대(足臺)가 발굴되었다.

24일 嶺南大박물관 고적발굴조사단(단장 鄭永和)은 이날하오 발굴중인 7호고분 석실서쪽 바닥에서 50㎝지점에서 길이 ㎝, 폭20㎝의 금동제 족대 1점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발굴된 족대는 屍身의 발목을 얹어놓은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발목을 얹을수 있도록 5㎝가량의 사이를두고 깊이15㎝정도의 홈이 파져있었다. 【鄭】

숨어살아온 25년

50년대 話題뿌린 「女大生킬러」 朴仁秀씨

「朴仁秀」. 이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하고 있을까.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숱한 충격과 시련을 겪어왔지만 朴씨만큼 한시대의 사회풍속도를 온몸으로 살아간 사람도 드물다. 「미국물」에 무분별하게 빠져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自由夫人시절 그는 능숙한 화술과 춤솜씨로 여대생등 70여명을 농락했다던가…. 또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기상천외한 판결을받아 풍속사에 길이남을 한국판 돈환이 됐다던가. 「朴仁秀사건」이 끝난지 이제26년. 한때 사망설까지 나돌았던 朴씨를 찾아보니 옛모습을 전혀느낄수없는 중후한 인품의신사였다.

◇안내양들과 함께 거리질서확립캠페인에나선 朴仁秀씨。 주름살은 늘었지만 헌칠한 키가 돋보인다。

運輸會社근무… 안내양福祉전념

"당시 나에겐 自我가없었고 그녀들은 분별력이 없었다"

「여자 대하기가 두려웠다. …그시절 저는 자아(自我)가 없었고 그녀들은 분별이 없었던거지요」…자기반성의 담담한 어투가 자연스러운 경지에까지 가있구나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도 당시의 여대생처럼 외래문명을 소화하지 못한채 탈선하는 여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경박한 퇴폐의 정체를 일찌기 선각했던 그인지라 그의 「걱정」은 그어느 누구의 경귀보다 설득력있게 울렸다.

朴씨(54·서울江南區三成洞)는 지금 仁川 K운수의 노조위원장겸 전국자동차노조 仁川지역협의회의장으로 안내양들의 후생·복지를위해 일하고 있다. 그동안 자랑스럽지않게 널리 알려진 이름을 朴鉄, 朴珍등으로 고쳐쓰면서 건축업 야채장사 목장등 닥치는대로 안해봤다.

키가 1m76으로 훤칠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주름살이 늘고 안경은 썼지만 걸음걸이등 몸놀림은 여전히 날렵해 보였다.

그가 1년간 복역하고 나온 57년부터 지금까지 신분노출을꺼려 숨어살아온 생활의 연속이었다. 10년전 新村에 살때 모월간지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도 찾아와 살림을 놓아둔채 이사하는등 조금이라도 이웃이알면 집을 옮겼다. 새사람이 되겠다고 결심, 다방마담 술집여인들이 만나자고 간청해도 한번도 응해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朴仁秀사건의 시작은 해군대위시절 약혼녀가 그를 배반하고 다른남자와 결혼했을 때부터라고 할수 있다. 상처받은 26세의 청년朴仁秀는 소위시절 부산해병대사령부 근무중 중국여인으로부터 배운 트로트·블루스등의 춤솜씨를 밑천으로 행각에 나서게 됐던것이다. 세상의 모든 여인을 저주하면서 해군장교구락부(LCI) 國一館 樂園등을 무대로 춤바람든 여대생등과 어울려 그의 행위가 사건화한 55년6월까지 [illegible] 1년여동안 70여명의 여인을 만났다.

여대생중에는 국회의원, 고관의 딸들도 많았고 생판모르는두 여자가 그의 두팔을 나눠베고 함께잔 일도있었다. 54년 1월부터 서울신문에 연재된 鄭飛石의 「自由夫人」의 영향으로 춤바람은 거세게 일었고,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댄스판이 벌어지는등 현대여성은 사교춤을 출줄 알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을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權純永판사(77년 58세로 타계)는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수있는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매스컴등 여론은 무척 시끄러웠다.

朴仁秀는 결국 고등법원에서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으나 재판과정에서 「70여명의 피해자중 미용사 李모양밖에는 처녀가 없었다」는 그의 진술이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결혼을 약속할 필요도없었고 댄스홀에서 나오면 여관으로 가는것이 상식이었다는 당시 여대생의 정조관념이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예고없이 재판을 열어도 유리창이 깨질만큼몰려 기마경찰이 동원되는등 朴仁秀재판의 「인기」는 대단했다. 權판사는 2회공판때 모여대의 라이벌격인 모여대생들의 단체방청을허용, 지식층의 공격을 받았는가하면 요정마담등 유한여인들이 고위층인사를통해 방청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비밀장소로 숙소까지 옮겼을 정도였다.

그는 두번 결혼을 했다. 1남1녀를 낳은 전부인(51)은 15년전 「그가 3년동안 가출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선언, 두번째로 여인에게 배반당하는 쓰라림을 맛보았다. 두번째부인(36)은 S상가에서 식품상을 할때 이웃 양품점에서 일하던인연으로 결혼했으며 딸만 둘을 낳았다.

그가 월급장이가 된것은 지난79년5월 학병동료의 소개로 K운수에 입사하면서부터인데 노무과장직을 마다하고 핸들을잡아 1년동안 무사고로 운전을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노조조합장에 당선되고 지난5월에는 仁川지역협의회의장으로 발탁됐다. 75년부터 3년동안은 仁川市萬壽洞 여동생의땅 5천평에 젖소 12마리를 사육하며 목축과 포도등을 경작했으나 실패했다. 통조림류를 3년동안 군부식으로 납품하기도했다.

朴仁秀란 이름때문에 며올론 일도있었다. 68년 서울城東區金湖洞의 종합시장을 건설할때는 그가 朴仁秀란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던 주민들이 카바레를 차리는줄알고 동네장사가 잘될것으로믿어 부지조성에 적극협조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을가진 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즘의 제비족들을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 사무국장 金成泰씨(35)에 의하면 「사생활이 너무 모범적이어서 55년당시의 朴仁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래도 춤솜씨는 여전해서 퇴직동료 송별회때 마지못해 한바탕 춤을 추었는데 그렇게 멋지게 춤을 좋은 몸맸다고 모두 놀랐다는 것이다.

그는 함께어울렸던 당시의 여대생중 10여명을 서울·부산·仁川등지에서 만났다고한다. 모두 가정을 갖고 잘살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했다고한다.

朴씨는 지난7월 모방송국의 「제1공화국」에서 「朴仁秀는 사업에 망해 죽었다고 전해진다」고 방영돼 지금까지 죽은것으로 알려져왔다.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죽였다고 보도한데 격분했으나 조용한것이 좋아 참고 산다고 했다.

그는 매일새벽 5시30분에 仁川으로 출근, 줄서기등 거리질서바로잡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돌아온 탕아」가 더건실해지듯 그런사건을 겪었기에 그는 성실한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깊게 체득하고있는지 모른다.

◇27년전 공판정에서의 朴仁秀씨。

【仁川=崔成基기자】

4萬弗훔친 범인 換錢하려다 잡혀

서울永登浦경찰서는 24일 金浦공항에서 발생했던 재미교포의 4만달러도난사건의범인으로 崔福男씨(21·전과2범·永登浦區永登浦1洞618 명일아파트나동202호)를 검거,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화3만8천8백17달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崔씨는 지난13일하오 3시3분께 金浦공항2층대기실에서 재미교포 安永大씨(40·식당업·미국캘리포니아州 루스틴市거주)의 4만여달러가든 검은색007가방을 훔쳐 달아났었다.

崔씨는 훔친달러를 어머니(54)를 시켜 지난20일하오5시께 永登浦洞5街 외래품상 완재상회(주인 金明九·23)에서 1백달러당 7만9천원씩 모두5백달러를 한화로바꾼뒤 이튿날인 21일상오 또다시 5천달러를 바꾸려다 수상히여긴 가게주인 金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엉터리 生水·호텔등에 팔아

保社部, 6개 판매業所 고발

보사부는 24일 서울근교 야산의생수를 무허가로채취, 여과살균과정도 거치지않고 무공해음료수 생수인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영생수(대표 강석호·39·서울恩平區驛村洞52의25) 등6개업소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보사부에 의하면, 이들 6개업소는 경기楊州郡長興面一山, 廣州邑胎田里산기슭, 城南市 一面일대에서 무허가로 지하수 또는 샘물을 위생처리없이 채취, 야간에 서울로수송해 江南일대의 아파트밀집지역과 호텔에 팔아왔는데 지난8월께부터 최근까지의 판매량만도 2천9백61만6천4백43ℓ(2천1백64만6천원어치)에 이르는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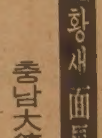
이날 고발된 무허가 판매업소는 다음과같다.

▲일영생수(강석호·39·서울恩平區驛村洞52의25) ▲청암생수(이해룡·40·서울江南區道谷洞126의2) ▲江南약수가족회(배연섭·39·江南區瑞草洞211) ▲熊泉약수가족회(김재옥·39·서울漢南區城山洞3·38·경기城南市上大院洞) ▲초정약수가족회(강정의·20·서울冠岳區新林本洞408의145) ▲리버스개발(나돈의·서울江南區盤浦쇼핑타운7동502호)

황새 面長

충남大德郡 九則面 崔鍾天씨

"모처럼 珍客…죽음안겨줘 痛恨"



甲川황새의 죽음이 던진 파문은 크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大德郡 九則面長 崔鍾天씨(48·사진)의 피로한 심정을 그 누구와 비교하랴.

崔씨는 지난17일하오 甲川하류의 황새를 감시하던 면직원이 허겁지겁 달려와 悲報를 전하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오짠 일이냐」는 말이외에는 할말이 없었다. 상부에 보고하고 난후도 일정이 태산같아 저녁식사도 걸렀다. 면장경력 2년, 면직원생활22년에 이보다 더 큰변은 없었다.

황새의 사인이 사이나중독으로밝혀진 지금 崔씨는 죄인이 된 심정이다.

『상부의 문책이 두려워서만은아닙니다. 60년만에 찾아온 珍客을보호하기는 커녕 죽였으니 무슨 말을 하겠읍니까』

甲川하류에 황새떼가 날아든 지난8일부터 崔씨는 추곡수매등 정신없이 바쁜속에서도 소년처럼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황새도래지 甲川은 그의 어린시절의 꿈이 어린곳이라 더욱 그러했다.

九則面 鳳山里에서 태어난 崔씨는 지금은 「죽음의 江」이된 甲川 냇가에서 멱도감고 피라미 모래무지를 잡으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황새의 우아한 날개짓은 어린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던 것이다.

崔면장에 의하면 甲川에 황새떼가 찾아온것은 우연이 아니다. 甲川은 물이 맑고 깊어 각종 물고기가 풍부한데다 늪지와 넓은 개활지가 펼쳐져있어 황새의 도래지로는 최적지다. 「九則」이란 마을이름도 甲川의 물이 깊어 9개의 나루터가 있었다는 역사에서 유래했다.

황새도래의 소식을 듣고 崔씨는 임시반상회까지 열어 주민들에게 옛추억을 되살려가며 황새보호를 역설했고, 주민들은 그에게 「황새면장」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한마리는 죽고 나머지는 살것이 못된다는듯 떠나가 버렸는데요. 황새를 죽여버린 인간의 잔인한 마음이 미울따름입니다』

崔면장의 말소리엔 황폐해진 인간세계에 대한 분노가 서려있다. 황새의 도래와 함께 그 옛날 멱감고 물고기잡던 때처럼 甲川의 물이 맑아지기를 기대했다는 꿈이 깨져버린것도 몹시 안타까운 것이다. 【大德=姜秉泰기자】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11월22일 (월)부터 공연시작>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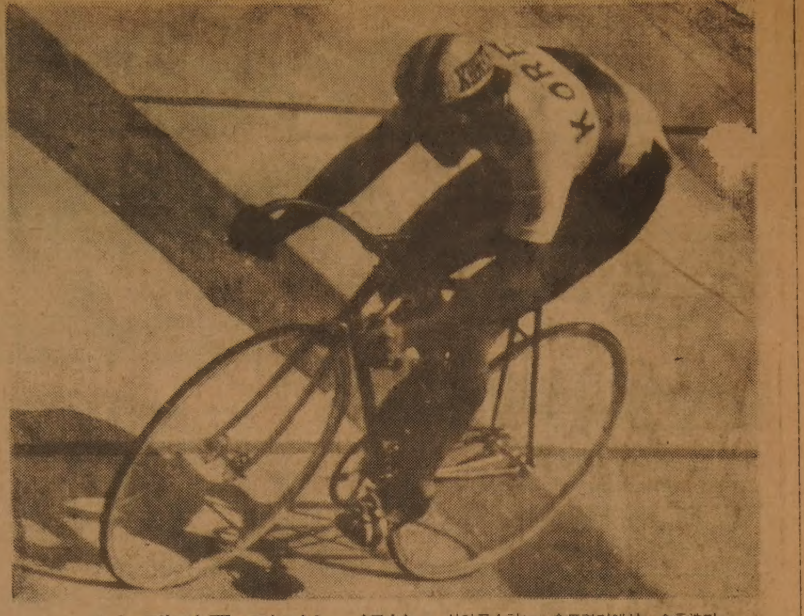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한국현대 무용단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南北韓 치열한 메달競爭

한국 金6·銀7·銅8개로 北韓앞질러



◇뉴델리를 달리는 銀輪 사이클1천m 속도경기에서 金永洙가 역주하고있다。金은 은메달을 차지했다。【뉴델리=聯】

탁구 윤경미 또 北韓꺾어

女子테니스 中共과 金메달 다퉈

제9회 아시안게임 6일째

中共、金19개로 先頭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 한국은 제9회 아시안게임 6일째를 맞은 24일 현재 금메달 6개(사이클1、궁도2、사격2、수영1)를 얻어 금메달4개(궁도1、체조3)의 북한과 치열한 메달경쟁을 벌이고 있다. 中共은 23일 끝난 체조종목에서만 12개의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금메달19개를차지、1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日本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테니스여자단체전 준결승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3-0으로 제압、은메달을 확보해 中共과 정상을 다투게 됐다. 남자팀은 인도네시아에 2-1로 패해 中共과 3、4위전을 갖는다.

中共남자체조의 리닝(李寧)은 단체및 개인종합우승에 이어 링과 안마를 석권、4관왕이 됐고 우쩌아니(吳佳妮)는 여자단체전에 이어 평균대와 평행봉에도 금메달을 따 3관왕이 됐다.

日本은 수영 남자배영 2백m에서 다까하시가 2분8초33(종전 2분10초87)、그리고 여자자유형 4백m에서 사이또가 4분25초72(종전 4분31초35)를 각각 기록、아시아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남녀접영 2백m와 남자 4백m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수영 12개종목중 10개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水泳王國 日큰충격

◆…아시안게임여자배영2백m에서 崔允喜·允庭자매가 1·2위를 석권하자 日本은 큰충격을 나타냈다.

日本신문들은 24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한국수영이 日本보다 못하다고 보던 시절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오꾜(東京)신문은 두자매가 韓服을 입고 수상대에 서있는 사진을 체육면 3단으로 크게 싣고 『日本여자수영의 완전제패가 水沒했다』고 개탄하기도했다.

요미우리(讀賣)와 산께이(産經)도 사진과 함께 『이제부터는 中共뿐아니라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게임을 앞둔 한국의 약진이 무섭다』고 강력한 라이벌의 출현을 예고했다.

공동1·2位쏟아져

◆…체조경기서는 中共、북한、日本선수들의 백중한 수준때문에 공동1위、2위가 쏟아져나와 통계 작업이 부실한 대회본부와 매스컴들이 더욱 곤욕을 치렀다.

남자안마에서는 中共의 리닝、리샤오핑、북한의 이철훈이 모두 19·80점으로 공동 1위를 마크、3명이함께 金메달을 따내는 바람에 銀、銅메달은 사장되고 말았다.

평행봉서는 中共의통페이、리닝、북한의 이철원이 모두 19·45점으로 공동2위를 마크、19·35의 權五爽(한국)은 메달권에서 아깝게 밀려나고 말았다. 체조가 공동순위를 인정하는데비해 역도경기는 체계량으로、궁도는 면중률(10점짜리)로 공동득점자의 순위를 가려내 그만큼 금메달획득에 손해를 본셈이다.

8세때 체조시작

◆…오늘날 체조경기에서 스타는 태어나는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체조경기에서 4관왕이된 中共의 리닝(18·李寧)은 이러한 말을 뒤엎기라도 하듯 배웠다기 보다는 타고난 천부적인 자질을 보여주었다.

江西省출신인 리닝은 8세때 체조를 시작、10세때 中共유년부 타이틀을 차지했고 80년에는 국내개인종합 타이틀을 차지、中共체조의 1인자로 부상했다.

리닝은 81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金3개를 획득했고 금년9월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종합 타이틀을 차지、세계제1인자로 등장했다. 1m65、60kg의 단단한체구인 리닝은 링과 안마에서발군의실력을보이고있으나 평행봉이 약해 앞으로 더 연마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

청바지와 비스킷트를 즐긴다는 리닝은 『漢城에서 열리는 86아시안게임에 꼭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델리소식

日紙、"한국水泳 日보다못한시절 지나"

北韓사격、선수 世代교체로 사양길에

北韓예상외의 不振

◆…사격에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북한이 대회초반 예상외로 부진.

74년 테헤란과 78년 방콕대회에서 16개의 金메달을따냈던 북한은 첫날 간판종목인 소구경복사에서 메달을따지못했는가하면 이틀째 소구경3자세에서는 한국과 中共에 훨씬 처지는 기록으로 銅메달에 그쳐 고전하고있다.

더구나 북한이 개인전에서 얻은 銅메달은 개인별 성적순이 아닌 국가별 시상 시스팀에 따라 얻은것이어서 왕년의 『명성』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있다.

北韓은 소구경부문에 金경호·金윤섭·金동길·洪광식을 출전시켰는데 이중 洪을제외한 3명은 노장들이며 올림픽 金메달리스트 李호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현역에서 물러난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 심판을 맡고 있는 金基煥(39) 사격 연맹이사는 북한이 세대교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것 같다며 한국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대북한콤플렉스를 벗어날 계기를 맞게 됐다고 분석.

이란、대규모 응원

◆…한국과 이란의 축구예선경기가 벌어진 네루스타디움에는 머리에 파란띠를두른 대규모 이란응원단이 대형국기와 플래카드·악기등을 동원、열렬한 응원을 벌였다.

이곳에는 호메이니집권이후 많은 이란인들이 이주해와 운동장에는 이들 교민들로 꽉찬 느낌.

이들은 경기에앞서 여러가지 구호를 외치는가하면 이란·이라크전 상이용사들이 휠체어를타고 운동장을 돌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국은 농구선수단몇명이 나와 경기를 지켜봤으나 이란의 기세에 눌려 응원할 엄두도 못냈는데 이란의 극성스런 소란에 반대하는 印度응원단이 코리아를외치며 한국팀을 응원했다.

베가孃은 영화배우

◆…인도네시아의 단거리 육상선수로 출전한 리디아·데·베가양은 영화배우로도활약하고 있어 화제.

베가양이 처음 출연한 영화는 승리를위해 집념을 불태우는 한 젊은 육상선수의 애환을 그린것으로서 이번 아시안게임 개최 3일전에 마닐라에서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觀衆 非人氣종목에

◆…이번대회에서는 관중들이 전통적인 인기종목인 축구와 하키를 외면하고 농구와 궁도등 인도에서는 덜 알려진 비인기종목에 몰려들어 인도관중들의 스포츠기호가 달라지고있음을 시사.

축구와 하키의 노천경기장이 텅텅빈대신 1천8백50명을 수용하는 실내농구장에는 2천여명의 관중이 밀려들었으며 델리대학에서 벌어진 궁도경기장에도 1천명이 관전하여 만원을 이뤘다.

광고출연선수 出戰

◆…상업광고의 모델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추어자격에 시비를 빚었던 인도네시아의 최우수 배드민턴선수이자 이번대회의 유력한 금메달후보인 리엠·스위에·킹과 여자선수 베라와티양은 아시아경기연맹(AGF)이 이들의 아마추어자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경기에 출전할수 있게됐다.

AGF집행위원회는 23일 인도네시아배드민턴연맹(IBF)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두선수가 스포츠용구의 모델을 하면서 광고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돈이 결국 IBF에 귀속됐기 때문에 두선수의 아마추어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 배드민턴경기는 25일부터 시작되는데 리엠선수는 금메달후보로 꼽히고 있다.

◇여자체조 뜀틀에서 중공의 리·퀴링㊥첸영양에이어 한국선수로는 처음 銅메달을따낸 李貞熙㊧가 시상대에서 관중들의 환호에답하고있다. 【뉴델리AP電=聯】

朴定求씨 副會長에

◆…아시아궁도연맹(AAF)은 23일 총회를 열고 朴定求대한궁도협회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安容珉전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또 이날 아시아배드민턴연맹(ABC)총회에서도 劉利均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이 부회장에 피선됐다.

쿠웨이트 구설수

◆…아시안게임선수촌을 마다하고 봄베이市의 초호화호텔에 투숙키 위해 2대의 점보제트기를 전세냈다는 보도로 구설수에 오른 쿠웨이트선수단은 이번에는 역도선수의 근육을 단련시키기위해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으로 또한차례 곤욕을치르고있다.

이에대해 쿠웨이트선수단의 한 대변인은 『우리선수단에는 역도선수가 없는데 무슨 당치도않은 소리냐』고 항변.

그는 또 『우리나라가 부국일지 모르지만 선수단이 이곳에서까지 2대의 점보제트기를 세낼만큼 미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선수단은 선수촌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다만 사치품이 있다면 몇대의 컬러TV뿐』이라고주장.

컬러TV 보관못해

◆…印度정부는 국내최초로 컬러로 방영되는 아시안게임을 보다 많은 印度人들이 시청할수있도록 컬러TV수입관세를 대폭 삭감했으나 지나치게 많이 수입된 컬러TV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고민중.

특히 아시안게임개최중에는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라 수천대의 컬러TV가 대량유입되는 통에 이를 보관할 창고가 모자라 그냥 노천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신문공동취재단=聯】

◇金銀자매의 수중포옹 崔允喜·允庭자매가 배영2백m서 각각 1·2위를 차지한후 물속에서 축하의 말을 나누고있다。【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聯】

漕艇 2位로 決選에

梁英子도 3회전올라

한국여자탁구의 尹環美와 梁英子는 단식2회전에서 북한의 임종화와 일본의 시마우찌를 각각 누르고 8強의 3회전에 진출했다.

尹環美는 임종화와의 남북대결서 3-1로 낙승했으며 梁英子는 일본의 시마우찌·요시꼬에 3-2로 역전승을거뒀다.

그러나 여자 복식 준준결승전 李誨子·尹環美조가 북한의 이영숙·임종화조에 3-0으로 패했다.

한편 남자 복식 2회전서 金浣·金琦滔조는 파키스탄을 그리고 朴利熙·尹吉重조는 말레이지아를 각각 3-0으로 눌러 준준결승에 올라 인도네시아및 일본선수들과 맞붙게 됐다.

한국여자 테니스팀은 中共과의 단체전결승 첫단식에서 金壽玉이 中共의 유피아오를 2-1(6-7、6-0、6-1)로 눌러 1승을 올린 가운데 두번째 경기를 벌이고 있다.

◇25일 한국경기〈한국시간〉

▲농구	남자—바레인(16시30분) 여자—인도(12시30분)
▲축구	한국—일본(18시)
▲핸드볼	한국—바레인(12시30분)
▲배구	여자—북한(19시30분)
▲배드민턴	남자단체—파키스탄(12시30분) 여자단체—인도네시아(17시30분)
▲육상	4백m허들·田京美(13시15분) 4백m릴레이 卞明姬、全貞植、朴美善、李英淑(14시15분) 투원반·李尙俊(17시) 8백m·金福佳(17시30분) 1만m·朴元根(18시15분)
▲사이클	4천m 단체추발 金福童·吳允煥·金佳錫·李龍佑(12시30분) 1천m 스프린트 金永洙·崔丙昌(16시30분) 4천m 개인추발·金佳錫(17시25분)
▲역도	82·5kg급 李康錫·申東澈(18시)
▲수영	하이다이빙 朴鍾龍·李承俊(12시30분) 평영1백m 千仁泰·權子楨(17시) 자유형8백m 李始恩(17시)
▲사격	공기소총·朴大雲·徐長雲·金善德·郭才南(12시30분)
▲탁구	남녀개인단·복식준결승및 결승(12시30분)
▲테니스	남자단식 이우룡·金春浩(14시30분) 여자단식 金男淑(14시30분)

탁구

24일열린 탁구개인전 여자단식 2회전서 梁英子는 세계랭킹 32위인 강적 시마우찌·요시꼬(일본)를 풀세트 접전끝에 3-2로 격파、3회전에 올랐다.

남자 단식의 金浣은 마레인의 알리·알마드를 3-0으로 제압했다.

謝賽克(중공)、오노(일본)、홍철(북한)등은 남자단식 3회전에、童玲(중공)、간다·에미꼬(일본)、김경선(북한)등은 여자단식 3회전에 진출했다.

▲남자 金浣 3(21-15, 21-16, 21-14)0 알리·알마드

梁英子 3(21-19, 21-11, 15-21, 21-19, 11-21)2 시마우찌·요시꼬

조정

한국조정팀은 有舵포어 준결승서 1위、無舵페어 준결승서는 2위를 마크、결선에 진출했다.

▲無舵페어준결승=①인도 7분45초32 ②한국 7분49초73 ③印尼 8분16초17 ④북한 8분47초39 ▲有舵포어준결승=①한국 7분2초56 ②일본 7분13초10 ③인도 7분30초37 ④홍콩 7분58초08

축구

▲D조 이란 1(1-0, 0-0)0 한국 (1승1패)(1승1패) 일본 3-1 남예멘 (2승)(2패)

사격

트랩선 6위로

초반 부진했던 사격부문에서 尹德夏가 귀중한 금메달을 따내 한국선수단의 사기를 높였다. 트랩에서는 부진、6위로 밀려났다.

▲개인소구경3자세=①尹德夏(한국)1、144점②장체중(중공)1、142점③김유석(북한)1、131점 ▲동단체①중공4、540점②한국4、534점③북한4、501점 ▲트랩=①중공532점②인도524점③일본520점⑥한국501점

사이클

▲1천m개인독주=①사까모도(일본)1분9초14②金永洙(한국)1분10초78(이상대회신·종전1분11초15)⑧가베스(필리핀)1분13초17

농구

▲남자B조 한국 103(52-38, 51-38)76 쿠웨이트

역도

▲67·5kg급합계=①라오진관(중공)307·5kg②시바다(일본)305kg③차오신민(중공)297·5kg⑦金元春(한국)272·5kg

체조

▲여자개인(뜀틀)=①리퀴링(중공)19·525점②첸용얀(중공)19·350③李貞熙(한국)19·250④최정실(북한)19·000 ▲동평행봉=①우쩌아니(중공)19·800점②최종실·이정애(이상북한)19·75점⑦李貞熙(한국)16·800점 ▲동평균대=①우쩌아니(중공)19·800점②치앙위(중공)19·30점③노리스·마이꼬(일본)19·20점④鄭鎭愛(한국)19·15점 ▲동마루운동=①최종실(북한)19·85점②웬치아·우쩌아니(이상중공)19·80점④李貞熙(한국)19·20점 ▲남자뜀틀=①후윤(중공)19·55점②구시껜(일본)19·40점③羅欄(한국)·이길수(북한)이상19·30점 ▲동마루=①통페이(중공)19·80점②이철훈(북한)·리위에추(중공)이상19·65점 ▲동안마=①리쇼핑(중공)·이철훈(북한)·리닝(중공)이상19·80점 ▲동링=①이수길(북한)·리닝(중공)이상19·80점③방위민(중공)19·75점 ▲동평행봉=①구시껜(일본)19·60점②리닝(중공)·통페이(중공)·이철원(북한)이상19·45점

테니스

▲여자단체준결승 한국 3-0 필리핀

金男淑 2(6-1, 6-1)0 피에·타마요

金壽玉 2(6-0, 6-2)0 카스틸레조

申順浩·金男淑 2(6-0, 6-3)0 카스틸레조·타마요

중공 2-1 일본

▲동남자 인도네시아 2-1 한국

타락큐 2-1 李우룡

팀투스 2-1 金春浩

도널드·하디만 0-2 宋東燮·全瑛大

인도 2-1 중공

골프

▲단체(3라운드)=①인도659타②한국667타③말레이지아678타 ▲동개인=①엘·싱(인도)217타②주다이비(말레이지아)221타②사까다(일본)221타④金佳憲·金秉勳(한국)223타

배구

▲남자B조 한국 3(15-2, 15-7, 15-5)0 쿠웨이트 (2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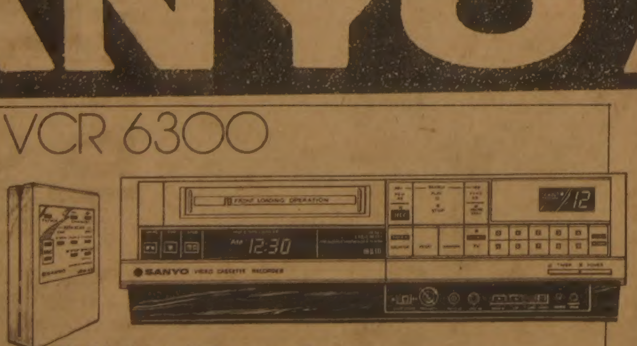
◇各國메달수

	금	은	동
①中共	20	16	10
②日本	16	12	9
③한국	6	7	8
④북한	4	8	8
⑤인도	2	2	1
⑥필리핀	1	1	3
⑦몽고	1	1	0
⑧인니	0	1	2
⑨이란	0	0	1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VCR 6300



□ Wireless 12 Function Remote
□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 3 Day - 1 Event Programming
□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전 광 채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광고문의 533-2361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발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설희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회.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퍼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휜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풀타임으로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경험있는분 환영. Islington 지역.
전화 : 622-2643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MINIATURE POODLE 강아지 (흰털복슬강아지)
새끼때 300불주려함·가족같이 잘 기르실분원함 (FREE) 533-2361 MRS.김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 입니다. 광고국: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용)	224-162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개인지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 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i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 7,500.00
전화 : 535-4441 Mr.김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잘 꾸며진 약국 매매(토론토). 3,000Sq.ft.
우체국 달림. 온타리오 약국면허를 필요로 함.
전화 : 781-2560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7,200. 1,200 sq.Ft. 렌트:$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l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스토아와 아파트 매매.
아스킹 : $97,000. 2층 벽돌건물. Garage와 파킹.
$47,500 몰개지. 12% 끝 1985. 바쁘고 좋은 지역.
▲Motel(23개 방). Burlington.코너에 위치하고 넓이는 120'X250'. 잘 꾸며지고, 좋은 컨디션.
아스킹 $400,000.
DORIS BURDA 763-5555
R. Cholkan & Co. Ltd.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d Room 아파트, 스카보로지역
(Markham & Lawrence) 리스 83년7월까지
전화 : 438-4537(오후4시~8시) Mr. 한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 캐쉬 레지스터 핀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밍크 쇼!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항상 저희 **미도파「밍크쇼」**에 대성황을
이루어 주신 교민여러분 성원에 보답코자
올해에도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고
「밍크쇼」를 갖게 되었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대표 장 추신 삼가

일시 : 1982년12월2일(목) ~13일(월)

영업시간 : 상오10시~하오9시

＊단, 사업하시는 분을 위하여 일요일은 낮12시부터 밤9시까지 영업합니다.

밍크, 친칠라, 링스, 라쿤, 각종FOX, 비버, 마스칼라, 무스, 각종털제품 (목도리, 칼라, 스톨, 모자등)

양털코트, 물 세무코트, 가죽코트, 케쉬미어 코트, 디자이너코트, 남·녀 겨울용 코트 다량준비

LONDON FOG®

남·녀 바바리코트 다량입하

40% OFF (공장도 가격)

Einhorn Furs®
TORONTO MADE IN CANADA

CANADA MAJESTIC MINK
◇30년 역사를 가진 캐나다의유수한 밍크공장 지정판매 대리점

Sawyer of Napa, Ltd.
◇최고급 남녀 양털코트및 반코트 지정판매 대리점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